

# 건축문화 **사랑**

Vol.008 10. July 2010  
<http://gjkira.kira.or.kr>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

광주 · 전남 · 전북건축사회

News 2010.07

008호

GWANGJU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694-10 T 062,521,0025 F 528,0026

## 전통건축

전남지방의 누정(樓亭)과 원림(園林)\_친목업

## 회원탐방

피카스는 어떻게 그림을 그릴까? 전북의 피카스 김홍성 건축사

## 실계경기

빛고을 도인건축사는 건립 설계공모

## 대학소개

목포대학교 건축공학과

## 시론

창조도시와 건축디자인\_손승광  
 공공건축물이 사치하면 안 되나?\_이정호

## 건축과 도시

새로운 도시민들기와 광주\_이영규

## 문화유산

언덕을 걷는 골목과 고성길의 속살\_송인동

## 그리스 타키 여행기

그리스 건축문화 탐방을 다녀와서\_이순미

# 2010 FIFA WORLD CUP SOUTH AFRICA



	Free State Stadium
	Peter Mokaba Stadium
	Mbombela Stadium
	Ellis Park Stadium
	Royal Bafokeng Stadium
	Moses Mabhida Stadium
	Loftus Versfeld Stadium
	Soccer City
	Nelson Mandela Bay Stadium
	Green Point Stadium

### 창조도시와 건축디자인



손승광 교수  
동신대학교 문화건축학부

산업화 이후 현대도시는 급격한 변화를 거쳐 왔다. 수많은 도시가 만들어졌고 이상적인 도시를 그려 왔다. 그리고 그러한 도시를 만드는 데에 많은 건축가들이 건축물을 설계하고 건설하는 데에 가장 중추적

인 역할을 해 오고 있다. 도시는 단순히 그 도시사람들이 살아가는 장소로서만이 아니라 외국 혹은 외지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소비하는 관광산업의 자원으로서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으며, 건축이 어떻게 기여하는가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건축 활동은 창조적인 활동이다. 언제나 창조적인 활동을 하여 오고 있는데 왜 창조도시란 말인가? 창조는 진부한 것을 거부하고 새로운 것을 추구한다. 새로운 것은 진부하게 보아온 과거의 유산을 지우면서 새로움을 추구해 왔다. 경제력의 향상은 가치기준을 급속하게 높여주었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과거의 노후화된 환경보다는 새로운 시설과 환경이 과거에 비하여 좋은 환경을 제시해 주었다.

이러한 경험은 과거의 것 보다는 '새로운 시설이, 새로운 건축이 좋다'라는 생각이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져 왔으며, 진리로 받아들여져 오고 있다. 이러한 논리로 근대화과정을 지나면서, 이 동안에 우리나라의 노후화된 건축물들이 대부분 파괴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의 소중한 문화적 자원도 사라져 5천 년의 역사와 문화를 자랑하는 우리나라의 자랑거리는 찾아보기 어렵다.

우리가 소중하게 가꾸고 있는 5천 년의 문화는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는가? 부지런히 우리의 역사와 문화흔적을 지우면서 '새 것 만능주의'로 쫓아온 결과, 우리는 늘상 신도시나 신개발이 이루어지는 도시를 꿈꾸고 있다. 그러나 창조는 과거를 지우고 새로운 것만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일까? 도시에서 창조는 '새로움'을 만드는 것보다는 '매력을 만드는 것'일 것이다.

매력있는 도시가 창조적인 도시라면, 도시의 무엇이 매력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도시란 새로운 것이 매력이기도 하지만, 오랜 시간 존재하는 동안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과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져서 얻은 다양성은 더 큰 매력이다. 이러한 매력을 얻기 위해서는 과거를 지우면서 새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흔적을 존중하는 가운데 새로움을 추구함으로써 축적된 기억, 흔적, 그리고 문화로서 다양성이 지속되어야 한다.

건축설계는 주어진 부지에 건축주가 요구하는 건축프로그램과 디자인을 만족시켜주는, 건축주만을 위한 것만이 아니다. 도시의 정신, 문화와 역사를 존중하는 가운데 있어야 한다. 역사와 문화는 건축을 자체만으로도 중요한 컨셉이 된다. 그리고 보다 넓은 시각으로 그 건축물이 서있는 장소로서, 역사문화 환경을 구축하는 주변 환경과 함께 건축을 바라보면 보다 풍부하고 완결성이 높은 매력있는 건축과 도시를 얻을 수 있다.

창조도시를 위한 도시적 사고는 주변과 배경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건축을 하는 것이다. 건축은 건축주의 프로그램만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도시가 바라는 정신, 문화와 역사성을 추구하면서 매력 있는 건축을 구축하는 데서 창조적인 건축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자.

### 공공건축물이 사치하면 안 되나요?



이정호 건축사  
전라북도 건축사회 부회장

최근 전국에 자치단체장 등의 선거가 끝나고 각지에서 취임식이 진행되었다. 언론 매체에서는 나름대로 분석하여 진보·보수 등으로 분리하여 단체장 등에 대한 성향을 논하고 있다.

최근 성남 시청사 등 준공 후 입주와 관련하여 국가지도자를 비롯한 상당수 국민들이 예산 낭비 등을 이유로 호화 청사에 대해 부정적 시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후속 조치로 해당 자치단체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였다.

우리 건축사들은 대부분 알고 있는 사실이었지만 유럽여행의 대부분은 건축물을 보는 여행이다. 그 중에도 성당·박물관·궁전·시청 등 공공시설이 주류를 이룬다. 또한 고딕·로마네스크·르네상스시대에 지어진 웅장하고, 화려한 건축물들이 대부분이다. 이처럼 후세에 남기는 건축물이 화려하고 웅장하여야 하는 것이 필요충분조건은 아닐지 몰라도 필요조건인 경우는 많다. 이 나라들의 건축문화 유산은 오늘날에도 그 가치가 유지되어 후손들이 조상의 문화유산으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여 큰 덕을 보고 있다는 현실이 부럽기도 하다.

건축물은 비록 개인의 사유일지라도 여러 국민들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면 결코 그 형태나 규모에 있어서 완전한 자유를 줄 수는 없는 것이다. 다른 말로 건축이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은 말 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하물며 규모가 큰 공공건축물에 있어서는 더욱 그 중요성이 크다.

지금 건축되어지는 이 시대의 건축물이 100년 후 아니면 500년 후의 후세들에게 어떤 의미로, 어떤 형태로 존재하게 될 것인가? 건축물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준영구적 시설인 것인데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호화로우면 어떠한가? 자본주의국가에서 아테리의 메디치가(家)와 같은 유산지본가가 문화자원에 투자한다면 사회의 지탄을 받아야 하는가?

1930년대 미국에서는 경제공황 대책으로 TVA사업 등 대규모 토목사업을 시행하였다. 그 시대에는 토목사업의 상당부분이 인력에 의존하고 있었으므로 전반적인 경기부양과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분배에 효과적인 정책이었다. 그러나 근래에는 장비가 발달하여 대규모 사회간접시설공사로 인한 고용효과는 크지 않으며, 그만큼 경기부양책으로도 적절하지 않다. 실제로 최근 1단계 공사가 완료된 새만금사업에 투입된 인력을 분석하여 1일 평균으로 환산하면 500~1000세대 아파트 건설공사에 동원되는 인력과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도로·교량·하천 등 우리나라의 토목시설은 경제논리와 개발논리에 의해 끊임없이 대규모로 건설될 뿐만 아니라 선진국이 부러워 할 정도의 고(高)사양으로 설계·시공되고 있다. 이를 단순히 투자비용 측면에서 생각한다면 상당수의 토목시설도 호화 기반시설이란 지탄을 받을 만 할 진데 아직까지는 크게 공론화되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토목 등 타 분야에 대한 투자가치를 폄하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건축물에 대한 무분별한 과잉투자를 옹호하는 것도 절대 아니다. 다만, 규모와 비용 등 외형적 측면만 보고 비판하지는 말자는 것이다. 그러한 시각으로만 본다면 유럽의 거대하고 화려한 신전들과 성당들,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으로 축조된 이집트의 피라미드와 중국의 만리장성 그리고 세계 곳곳에 세워진 마천루 등에 대해 우리는 열광하지 말아야 한다. 과거의 초가삼간에 비하면 지금의 아파트는 분명히 호화스럽고 지극히 사치스럽다는 것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무한한 인간의 욕망에 의해 사회는 발전한다고 한다. 그리고 발전되는 사회는 인간의 욕망과 사회적 가치를 변하게 한다. 누군가의 불순한 의도에 의해 저질러진 일이라면 지탄을 받아야 마땅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공공건축물의 호화와 사치의 논란은 사회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일 수도 있다. 현대건축의 화두인 친환경·생태·신재생에너지 등을 비용 때문에 사치라고 할 수는 없지 않은가.

아름다운 도시 광주를  
건축문화사랑과 함께 만듭니다.



건축사사무소 서로

건축사 정광민

광주광역시 북구 임동 94-93 TEL.(062)512-2125

# 5. 새로운 도시만들기와 광주

## 다섯 번째 이야기 - 외국의 사례 브라질의 '꾸리찌바'

이명규 교수

광주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 1. 첫번째 이야기 - 도시(City) (2010년 3월호에 게재)
- 2. 두번째 이야기 - 광주의 공간발달사 (2010년 4월호에 게재)
- 3. 세번째 이야기 - 광주의 시가지계획 (2010년 5월호에 게재)
- 4. 네번째 이야기 - 외국의 사례 '싱가포르' (2010년 6월호에 게재)

### 새로운 도시만들기의 세계적 모델 : 꾸리찌바(Curitiba)

꾸리찌바시(市)는 우리나라와는 지구의 정반대쪽인 브라질 남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유럽계 인종이 많이 살고 있는 인구 구성의 특성을 갖고 있다. 꾸리찌바시를 방문하면 먼저 놀라게 되는 점이 여타의 남미 도시들과는 달리 유럽의 어느 도시를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착각을 갖게되고 도시 자체도 매우 깨끗하고 질서정연한 것을 느끼게 한다. 이런 꾸리찌바시를 방문하려면, 우리나라에서는 한 번에 가는 비행노선은 없고 12시간씩 비행기를 두 번 갈아타고 가야하는 아주 먼 곳이다. 이런 먼 곳에 위치하고 있는 꾸리찌바시를 세계 각국의 많은 연구자들이 방문하고 있다. 그 이유는 유엔에서 도시개발의 모델이 되는 도시로 선정하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꾸리찌바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정책들이 매우 독특하고 혁신적이기 때문이다.

### 혁신적 대중교통시스템 : 역류버스와 통합운영정책

현재 서울시에서 도입되어 운영 중인 버스전용차선의 운영은 그 모델이 꾸리찌바에서 적용하고 있는 시스템을 서울의 실정에 맞게 응용한 것이다. 다만 꾸리찌바에서는 버스가 역방향으로 진행한다는 점이 다르다. 그러니까 자가용들이 오는 방향과는 반대 방향으로 버스가 가는 체계로 버스노선과 일반차량의 방향이 역방향인 점이 서울시와 다르다. 꾸리찌바에서 운영하는 시스템대로 운영할 경우 일반차량과의 사고가 나지 않을까 의문이 들게되는데, 이 점은 처음부터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였고 사회적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어 크게 문제가 안된다고 한다. 또 하나, 시에서 대중교통을 운영하면 당연히 적자가 발생할 텐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의문에 대해서도 아주 간단히 해결하고 있었다. 즉, 사람이 많이 모이고 다니는 곳에 터미널을 직접 개발하고 운영함으로써 거기서 발생하는 수입으로 대중교통의 적자를 보전하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공격개발에서 발생하는 이윤을 공익화함으로써 항구자원으로 사용하고 그 수익금은 적자를 보전하는데 사용하고 있었다. 광주시가 매년 대중교통에서 발생하는 적자를 예산에서 보전하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시스템으로 대중교통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다.



꾸리찌바시는 돈이 많이 드는 지하철 대신 대중버스를 이용한 독특한 교통운송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상가 활성화를 위해 보행자가 비를 맞지 않도록 값이싼 파이프를 이용하여 유리천장을 만들었다.

### 사람중심의 도시계획과 자립적 환경 및 복지정책

모든 대도시들이 그렇듯이 꾸리찌바 시도 교통중심의 도시운영을 사람중심의 도시로 바꾼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당시 시장이었던 자이메 레르네르가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를 보행중심의 도로로 만들기 위해 어린이그림사생대회를 도로에서 개최함으로써 주민들의 합의를 이끌어 성공했던 사례는 매우 유명하다. 사실 광주만 해도 일방통행을 통해 도심교통을 원활히 하고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야 되나 현실적으로 주민들의 합의와 강력한 비전제시가 되지 못하여 사업이 추진되고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시내 번잡한 상가도로를 보행자도로로 만들기 위해 어린이그림사생대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사업을 추진하였다.

한편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동네를 중심으로 지혜의 등대라는 일종의 청소년문화센터를 만들어 도서관과 자료실 그리고 독서실로 사용할 수 있게 한 정책들은 열악한 환경에서도 저소득층을 위한 가능한 사업이었다. 또한 분리수거를 통해 수집된 폐기물을 가지고 오면 음식료품과 바꿔 먹을 수 있는 전표를 주는 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분리수거작업에 저소득층을 고용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꾸리찌바시를 거닐다 보면 세계적 건축가인 오스카르 니에메르(Oscar Niemeyer)의 건축작품을 보는 것도 쓸쓸한 재미이다.



지혜의 등대. 저소득계층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에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 정보, 자료실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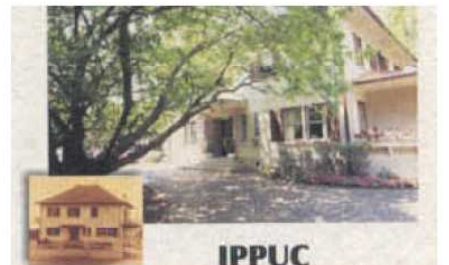
꾸리찌바시에 있는 오스카르 니에메르(Oscar Niemeyer)의 건축작품.

### 도시만들기의 주역과 도시계획연구소(IPPUC: Instituto de Pesquisa e Planejamento Urbano de Curitiba)

꾸리찌바시를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시 그리고 모델이 된 도시로 만든 주역인 자이메 레르네르(Jaime Lerner)시장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자이메 레르네르는 처음 정치와 관계없이 도시계획연구소를 책임지면서 풍부한 자금과 자원을 가지고 있는 유럽과 북미의 도시와는 다른, 브라질의 상황에 적합한 그리고 독자적인 정책을 펼치기로 한다. 지하철 건설이 아닌 버스를 중심으로 한 대중교통시스템의 운영과 못 사는 동네의 청소년을 위한 지혜의 등대의 건설 그리고 저소득층을 위한 환경복지프로그램의 운영 등은 자이메 레르네르가 없으면 불가능한 사업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무엇보다 꾸리찌바시가 추진한 사업들은 시장이 바뀌어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또한 공무원 신분을 가진 300여명의 전문가들이 도시계획연구소에서 주민의 의견수렴을 통해 계획을 작성하고 직접 사업을 집행하는 구조로 되어있다.



자이메 레르네르(Jaime Lerner). 건축가 출신으로 꾸리찌바시의 도시계획연구소 소장 겸 시장을 역임하였고 타임지가 선정한 2010년 세계를 움직이는 100인의 인물에 선정되었다.



도시계획연구소로 30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계획수립부터 사업을 직접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연구기관들이 연구 자체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데 비해 꾸리찌바시의 도시계획연구소에서는 연구뿐만 아니라 집행도 직접 한다는 점이 다르다. 지구 반대편에 가장 교과서적인 도시계획과 교통분야에서 세계적인 모델이 있다는 점이 지구 다른 한변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한번으로 무렵고 다른 한편으로는 도전의식을 심어준다. 도시계획전공자라면 한 번은 방문해야할 대표적인 도시가 아닌가 한다.

(다음호에 계속됩니다.)

jm7192@paran.com

## 한일지도판매(주)

한일지도판매(주) ☎ (062)524-3059, (062)529-1409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 477-2 운암주유소 뒤편

**관리지역 세분화 신판지도 출시!!**

이번에 새로 나온 책은 정부에서 시행한 시·군·전지역·관리지역 세분화 수록

**특보 2010년 최신 광주광역시 지번도책 판매 중!**

**이번에 새로 나온 신판 지도책은 전품목 30% 세일**

★최신 광주, 장성, 담양, 곡성, 화순, 나주, 함평 지번도책★

목포·무안·영암·신안군 4개 지역을 1권으로 관리지역 세분화 되어나와 판매중입니다.

**상담문의 ☎ (062)524-3059, 529-1409**

양림동이야기(3-1)

### 3. 언덕을 감도는 길목과 고샅길의 속살

송인동 교수  
호신대학교 역사문화자원본부장

- 1. 첫번째 이야기 - 빛고을의 아침을 깨우는 언덕 양림산 (2010년 2월호에 게재)
- 2. 두번째 이야기 - 강변마을의 노래와 함성 (2010년 4월호에 게재)

양림은 강변이나 평지를 향하여 완만히 흘러내린 언덕배기이어서 그 길목들은 아가자기한 고샅을 이루기도 하였다. 다형 김현승 시인의 집을 드나들던 문인들이 '녹색의 장원(莊園)'이라 일컫던 아름다운 숲은 이제 많이 가늘었지만, 수백 년 넘게 발길들을 맞았던 길목과 골목들은 남은 거목들과 함께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 양림동의 문화적 발자취와 역사적인 배경



송일학교 담장

노신사가 자전거를 타고 오는데 이 길은 일제가 1928년 광주천 직강화로 부지조성을 하기 전까지는 강과 인접한 강변길이였다. 자전거 뒤, 이 길 끝에서 50여 미터쯤에 다형 김현승 시인이 빈틈없는 청교도 신앙의

부친 김창국 목사 아래서 유년시절을 보냈던 집이 있었다. 그가 혼인 후 살던 그 부근의 집은 이성부, 문병란, 문순태를 비롯한 수십 명의 문인들이 드나들거나 인근에 거주하여 이른바 시인의 마을을 이루는 바탕이 되었다. 이 사진의 길 방향을 따라 다형의 집에서 좀 더 가면 '볼비의 시인 이수복의 집이 있었고, 독립운동가 김마리아 여사와 그 언니 김함라 여사, 그 고모 김필례 여사가 살던 집이 있었다.

김필례 여사는 이 길을 따라 당시 NGO센터이자 후에 광주학생독립운동의 터전이 된 흥화관까지 가서 강당이 꽉 차도록 여성들을 모아 야학을 하였다. 그는 또한 독립운동 중 일제가 살해한 것으로 알려진 오빠 김필순(우리나라 첫 의사)의 가족들을 돌봐주는 등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하는 가족과 친지들을 은밀히 도왔다. 중국에서 지금도 영화의 황제로 꼽히는 조카 김영의 글에서도 그녀가 등장한다. 평생을 조국의 독립과 교육과 여성운동에 헌신한 김필례는 수피아와 정선의 교장을 하였고 한국YWCA와 서울여대의 설립에 기여하였다.

#### 외국인 선교사들의 활발한 활동

노신사의 자전거 원편으로 아직 용케 남아 있는 옛 돌담에 대나무들이 빼꼼히 고개를 내밀고 서있다. 이 담(무등파크 아파트 담) 안쪽은 1908년 대한제국 허가로 미국 남장로교 배유지 선교사가 설립한 송일학교(광주 최초 남학교)가 있었다. 학생들은 애국심도 강했지만 야구와 같은 새로운 스포츠에도 빠르게 적응하여 선교사들을 놀라게 하였다. 사진 속의 헛바지와 저고리를 입고 야구 방망이를 들거나 포수 장비를 착용한 선수들과 한복 차림의 관중들 모습이 이채롭다.



송일학교 야구부

아래 사진의 좌우대칭 벽돌집은 송일학교에 딸린 공업관이었다. 일제의 한반도 침탈을 목격한 남장로교 선교사들은 음성 안의 좋은 터, 성 밖의 좋은 농토는 일본인들이 거의 다 차지하였으니 이제 한국인들은 무얼 먹고 살까라고 한탄하며, 모든 남, 여학교 교육에 실업교육을 도입하였다. 여자들에게는 양잠, 직조, 자수, 농업 등을 가르쳤고 남자들에게는 농업, 목공, 심지어는 일제 강점기 당시 실력으로 일본인들을 능가해야 한다며 자동차 조립도 가르쳤다.



송일학교 공업관

이러한 정신에 따라 배유지 선교사 후손을 비롯한 남장로교 선교사 후예들은 질병과 굶주림에 시달리는 북한 청소년들과 주민들을 위하여 약품, 의료 장비와 시설, 식량, 식수개발 따위를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



배유지 선교사 후손들과 북한에 보낸 식량

식량다미에서 찍은 이 사진의 포대에는 한반도와 십자가 그림과 'A gift from Christian Friends of Korea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 기증품 Soybeans' 라는 글귀가 있는데 이 단체의 이름은 변함없는 사랑의 실천을 보고서 북한 주민들이 지어준 이름이다. 110년이 넘도록 이어지는 사랑의 역사이다. 맨 우측 점퍼차림의 안경 쓴 이는 배유지 후손인 인도아 선교사로 한국에서의 평생 사역을 은퇴한 후 미국에 가서 미국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한국인 후손들을 위하여 일하면서 올해 1월 별세하기까지 북한 주민 돕기 사역을 즐기게 이끌었다. 그는 물론 지원 후 북한에 직접 가서 그 전달 과정을 꼼꼼히 확인하기로 정명이 되었다.

아까 그 자전거 타신 어르신을 따라가보자. 그 길 끝 무렵에는 다형의 제자 손광은 시인이 송일학교를 다니며 살던 집이 있었고 양림오거리에 이르러 갈라진 좁은 고샅에는 역시 다형의 영향을 입은 김준태 시인이 살았다. 김 시인은 1980년 광주항쟁의 전 과정을 목격하였고, 5월 21일 점심 무렵 흥중동 집 근처에서 남편(김 시인의 동료 교사)을 기다리다 계엄군의 조준사격으로 사망한 최미애 씨(당시 23세, 임신 8개월)의 가슴 아픈 사연을 담은 '아아, 광주여, 우리나라의 십자가여'라는 시를 그 해 6월 2일 발표, 외신을 타고 국내외에 알려졌다. 이 시를 게재한 당시 전남매

일신문은 강제폐간, 김 시인은 학교에서 강제해직되었다.

#### 양림동의 옛 정취와 고(古)건축물

오거리는 일제 강점기부터 양림의 랜드마크였다. 남매가 다정히 걸어오는 이 골목길은 오거리가 기점인 서서평길에 붙은 작은 고샅이다. 서서평길을 지나 솔한 봉사자들이 일제의 수탈로 파헤쳐진 농촌에서 올라온



서서평길

광주천(양림천)의 걸인들에게 찾아가 굶어죽지 않도록 먹이고 씻기고 입혀주었다. 서서평, 최홍중, 이현필, 강순명(최홍중의 사위) 그리고 이름을 감춘 수많은 이들이 참여하여 대규모의 빈민공동체 사역이 전개되어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작은 예수'로 불리운 서서평은 대한간호협회 설립, 전국 여전도회 설립, 이일학교 설립 등 굵직한 일들을 한 지도자였으나 정작 자신의 것을 다 나눠준 탓에 영양실조로 별세, 양림산을 오르는 그녀의 장례에는 빈민, 고아, 나환자, 과부, 가난한 여성들이 "어머니!"를 부르며 울부짖었다. 서서평의 정신을 기리고자 하는 대한간호협회의 뜻에 필자도 협력하여 마침내 광주광역시 남구에서는 천년 넘도록 양림의 입구 길이던 양파정 아랫길을 서서평길로 명명, 섬김과 희생이라는 양림 마을의 독특한 정신을 기리고 있다.

남매의 뒤쪽으로 멀리 보이는 뾰족한 탑은 양림산의 희생의 역사를 기리는 '빛과 섬김의 탑'으로 2009년에 첫 불을 밝힌 국내 최대의 크리스마스 타워이다. 두 어린이의 왼편 적벽돌담을 오른굽이로 따라가면 수 백 년 동안 정씨들의 세거지이던 터에 지어진 고택이 나온다. 1899년 정병호가 건축, 1965년 이장우가 사들인 집이다.



이장우 가옥 대문

사진은 그 대문간 모습이고 안채가 시지정 민속문화재 제1호로 지정되어 있다. 앞의 남매를 따라 10여 미터 걸어가면 서서평길과 만나는 곳에 정씨들의 삶의 발자취가 남아 있다. '광주정공업지려'이다. 양촌 정염은 선조 4년 전라도의 강직한 관리 3인에 뽑힌 인물이며 모친 병간호를 밤낮으로 하다 모친 별세 후 그 슬픔으로 자신도 병을 얻어 별세하였다. 1611년 나라에서 정려를 내려 그의 효행을 기렸다. 이 정려는 일제가 직강화하기 전 양림천변에 자리하였고 부근에는 물레방아도 있었다. 정병호 가옥(현, 이장우 가옥), 최상현 가옥(현, 최상호 가옥) 등이 자리한 위치는 무등산이 병풍처럼 펼쳐져 그 집 앞을 흐르던 강과 함께 그 조망이 매우 빼어난 곳이어서 부자들이 대대로 살아온 곳이었다. 고려말 목은 이색은 이 부근에 위치하던 석서정에 대하여 묘사하면서 '빛고을(光之州)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다음호에 계속됩니다.)

## II. 그리스 건축문화 탐방을 다녀와서

### 두번째 이야기 - 델포이, 아테네

이순미 건축사  
건축사사무소 미가는 대표

1. 첫번째 이야기-에피다보로스, 미케네, 올림피아 (2010년 6월호에 게재)

건축사 유럽여행 모인인 오군회에서는 지난 4월 9일부터 19일까지 10박 11일로 지중해 연안의 그리스와 터키의 건축 문화 탐방을 다녀왔다. 먼저 그리스의 건축문화를 2회에 걸쳐 소개하고 이어서 터키의 건축문화를 2회에 걸쳐 소개할 예정이다.

델포이는 고대 그리스 가운데에서도 가장 중요한 성지였던 만큼 예나 지금이나 각국의 여행객들로 붐빈다.

#### 신택의 영험함으로 유명한 델포이

델포이는 신택의 영험함 때문에 유명한 도시로 특히 전쟁에 나가기 전에 꼭 이곳을 찾아서 신택을 받았다 고 한다. 그리고 그 신택의 결과가 맞을 경우에는 각 도시국가에서 수많은 선물과 조각상 등으로 답례를 했기 때문에 델포이는 고대 도시 중 가장 부강한 도시였다고 한다. 델포이의 유적 입구에서 꺾인 성스러운 길을 따라 올라가면 아폴로 신전이 위치해 있다. 현재는 여섯 개의 기둥과 터만 남아 있다. 아폴론 신전으로 가는 성스러운 길에는 3000개에 이르는 조각상들과 봉헌물을 보관하는 보물창고가 들어서 있었다고 한다. BC 6세기 무렵 처음으로 아폴론 신전이 세워진 후 아폴론의 신앙과 신택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하지만 현재 남아 있는 유적은 BC 4세기의 것이다. 신전은 길이 60m, 폭 23m로 38개의 도리식 기둥이 전실, 내실, 후실을 둘러싸고 있다.



아폴론 신전

아폴론 신전 위쪽에는 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극장이 자리잡고 있었는데 관리인이 잔디를 열심히 깔고 있었다. 그리고 특히 이곳의 배수 라인만 돌로 깔은 정교한 구조체로 주변과 조화가 잘 이루어져 있었다. 과거 그리스와 지중해 세계를 신택으로 좌지우지했던 화려한 위용에 비하면 현재의 델포이 성역은 폐허가 되었다.

#### 아크로 폴리스는 예술과 건축의 표준

절벽의 가파른 경사면에 유적들이 흩어져 있는데 대부분 터와 기둥만 남아 있을 뿐이다. 그나마 땅 속에서 발굴된 몇몇 유물은 델포이 박물관에서 만날 수 있다.



델포이 배수라인

드디어 우리 멤버는 그리스 건축여행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아테네에 입성하였다. 그리스 신화에서 보면 아테나 여신은 지혜의 신으로, 제우스의 머리에서 태어났다고 한다. 제우스는 이곳에 도시를 만들 때 포세이돈 신과 아테나 여신에게 인간들을 위해 무엇을 해 줄 수 있는가를 물었다. 포세이돈은 말을 주겠다고 했고, 아테나 여신은 올리브 나무를 주겠다고 했다. 제우

스가 판단하건대 인간에게는 올리브 나무가 더 유용하겠다고 생각하여 이곳을 아테나 여신에게 주었고 그 후로부터 이 도시를 '아테네'라고 부르게 되었다. 아크로폴리스 정상에는 지금도 이러한 이야기를 기념하기 위하여 아테나 여신의 올리브 나무가 한 그루 심어져 있다. 밤에 도착한 우리 멤버는 아테네 입성의 감동으로 그냥 잠을 잘 수가 없어서 파르테논 신전의 야경을 보기 위해 호텔 밖으로 나왔다.

르 꼬르뷔제는 1911년 동방여행을 하면서 아테네에 있는 아크로폴리스를 날씨에 상관없이 4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방문했다고 한다. 그가 4주 동안 매일 파르테논 신전을 바라보았던 자리에는 현재 레스토랑이 들어섰는데, 우리는 그 자리에서 100년 후에 그와 똑같은 모습으로 서서 파르테논 신전을 바라보기 위함이다. 후일 그는 '아크로폴리스는 예술과 건축의 표준'이라고 경탄했다고 한다. 우리도 에스프레소 한잔과 함께 파르테논 신전의 야경을 감상했다. 물론 경쟁하듯이 서로 사진도 찍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우린 아크로폴리스(해발고도 156m)에 올랐다. 아테네의 가장 높은 언덕에 위치한 이곳에서는 신과 가까이 있으려는 인간의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 아크로폴리스에 오르면 아테네 시내가 한눈에 들어왔다. 이곳은 최초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곳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록 로고가 파르테논 신전에서 유래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디오니소스 극장(Theatre of Dionysos)은 아크로폴리스 언덕 남쪽 아래에 있다. 디오니소스 극장은 현재 유적으로만 남아 있다. 고대 아테네의 전성기에는 이곳에서 각종 연극공연이 열렸다고 하는데, 1만 5000명의 관람객을 수용할 수 있는 객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디오니소스 극장은 포도주의 신으로 이 극장 주위에서는 매년 디오니소스 축제가 열렸고 춤과 노래와 술과 음악이 어우러졌다 한다.



디오니소스 극장

#### 고대와 현대의 만남을 통해 2000년 시간대를 함께 공유하는 헤로도스 음악당

디오니소스 극장을 지나 헤로도스 음악당으로 향했다. 구조는 기본적으로 고대 로마의 극장 구조와 동일하지만 관람석이 디오니소스 극장과는 달리 급경사 계단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음악당 앞에는 로마건축의 특징인 아치형 창문들이 있는 3층짜리 높은 벽이 설치되어 있으며 원래는 목조 지붕까지 설치되어 있던 실내 음악당이었다고 한다. 이민족의 침입으로 대부분 파괴되었지만 1857년 발굴 이후 1950년~1961년에 복원되어 현재의 모습을 갖추었다. 이 음악당은 1세기의 건축물로 지금도 음악회나 연극 공연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헤로도스 음악당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인가. 고대와 현대의 만남, 역사와 예술의 만남. 이는 약 2000년의 시간대를 함께 공유하는 감동적이고 멋진 일이다. 건축이니까 가능한 일일 것이다.

프로피레아 관문을 지나서 아테네에서 가장 보고 싶었던 파르테논 신전이 한눈에 들어왔다.

파르테논 신전은 폭이 31m, 길이는 70m, 높이는 14m로 대리석으로 되어 있다. 정면은 8개의 기둥, 측면은 17개의 도리아 양식의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고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다. 파르테논 신전은 구성의 황금비례, 착각의 교정, 균제법의 응용 등에 대해 너무나 완벽하여 그리스의 건축미를 대표하는 건축물이다. 해가 파르테논 신전을 비추고 있을 때 대리석이 무척 아름답게 빛이 났다.



파르테논 신전

에렉테이온 신전은 동쪽에는 아테나 신전, 북쪽에는 포세이돈 성소, 남쪽에는 에레크테우스 성소로 구성되어 있다. 남쪽 현관에는 날씬하고 우아한 여인들의 자태를 묘사한 기둥이 6개 배열되어 있다.



에렉테이온 신전

카리아티데스 기둥(카리아나 카리아이 여인들을 모델로 만들었기 때문에 카리아티데스 기둥이라 부름)은 동쪽의 여인은 오른쪽 다리를, 서쪽의 여인은 왼쪽 다리를 약간 구부리고 있는 것은 대칭적인 안정감을 배려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서있는 기둥은 모두 모조품이고 진품은 아크로폴리스 박물관과 대영 박물관에 각각 보관, 전시되고 있다. 파르테논 신전뿐만 아니라 아크로폴리스에 있는 모든 신전은 모두 동쪽을 바라보고 있다. 그것은 해가 뜨는 동쪽은 탄생, 살, 활력을 상징하고 서쪽은 죽음, 쇠락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우린 파르테논 신전과 에렉테이온 신전이 모두 나올 수 있는 곳에서 추억 만들기의 기본인 사진을 남겼다.

#### 그리스의 옛 영광을 박물관에서

그리스의 찬란한 문화는 대부분이 폐허가 되었지만 그나마 그리스의 옛 영광은 박물관에서 볼 수 있었다. 승리의 여신 니케(니키) 상, 2m가 넘는 거대한 청동 조각상인 포세이돈 상은 막 창을 던지려는 역동적인 모습으로 매우 정교하였다. 매우 잘 생긴 프락시텔렉스의 헤르메스 조각상, 아폴로 상, 비너스(아프로디테) 상, 마차를 끄는 두 남자 상 등 여러 신과 인간이 함께 하고 있었다. 그리스의 남성 조각상을 크로스 상이라 하며, 그리스 여성 조각상은 코레 상이라 명명한다고 한다. 크로스 상의 경우 하나같이 간강하고 탄력 있는 근육질 몸매를 자랑하는데 이는 그 당시에 운동으로 몸을 가꾸는 것은 권력이나 재물을 갖는 것보다 중시했기 때문이다. 가끔씩 여성 상의 경우 옷이 벗겨져 있는데 이는 여인의 조각상이 아닌 여신의 조각상이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고 한다.



니케 여신상 비너스 여신상 포세이돈상 헤르메스상

그리스는 마치 예게해를 안고 있는 듯한 모양으로 되어 있다. 예게해는 그리스인에게 최고의 문명을 가져다 주었고, 온화한 기후 또한 그리스의 문화 발전에 도움을 주었다. 비교적 남북으로 긴 형태의 그리스는 산지가 많은 편이지만 바다와 평야가 고루 분포되어 있어 세계 최고 품질의 올리브가 생산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이 뒷받침되었던 탓에 미술, 건축, 철학 등 모든 면에서 뿌리를 파고들다 보면 결국 마지막 뿌리는 그리스가 된다는 사실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 세계 문화의 발생지인 그리스를 여행할 수 있다는 것은 참 행복한 일임에 틀림없다.

(다음호에는 터키 여행기가 연재됩니다.)

# 전남지방의 누정(樓亭)과 원림(園林)

천득염 교수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전통건축을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지난 2010년 4월호(목포대학교 건축학과 김지민 교수 '21세기 새로운 현옥의 가능성')부터 전통건축 지면을 개설하였으며, 이번호에는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천득염 교수의 '전남 지방의 누정(樓亭)과 원림(園林)'에 관한 내용을 게재하여 전남지방의 전통건축 의미를 알아보고자 한다.

전남지방의 누정건축은 소재원, 부용동 원림, 다산초당 등의 원림과 함께 한국의 전통정원에서 단연 손꼽히고 있는 귀중한 문화유산이다. 특히 무등산과 담양의 인접지에는 소재원과 식영정을 비롯하여 독수정, 명옥헌, 환벽당 등 유명한 누정들이 많다. 그래서 정자굴이라고 불리기도 하며, 우리나라 시기문학의 대표적인 정자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다.

## 건축적 정서를 간결하게 축약시켜 보여주는 누정(樓亭)

누정건축은 조선시대 사회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지식집단의 지적활동의 장이다. 이름 있는 인사나 집안에서는 정자를 건립·관리하였고 풍경이 좋은 장소에서 시 짓고 노래하며 사름을 갖는 장소였다. 또한 속세에 뜻을 두지 않는 자들의 은둔처이기도 하였다. 혼탁한 정치에 미련을 버리고 낙향한 선비나, 속세의 영욕에 해탈한 은둔자들에게 더 없는 안식처가 되는 것이다. 누정마루에 앉아 바라다보는 경치는 그 사람의 여유를 나타내며, 선인(仙人)들의 모습과 흡사한지도 모른다. 또한 건축 중에서도 비교적 사회적 성향이 강한 것이 누정이고 건축적 정서를 간결하게 축약시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다산초당



보길도 부용동 원림

누정은 보는 대상이 아니라 보기 위한 조망대이다. 조망의 정점에서 내려다보는 시점이고 누정으로 모아지는 것이 아니라 누정에서부터 펼쳐지는 것이다. 누정건축은 누각(樓閣), 정자(亭子), 재(齋), 정사(精舍), 대(臺), 당(堂) 등으로 불려 지고 있으며, 광주·전남지

역에 산재되어 있는 누정의 정확한 수효는 아직까지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으나 전남대학교 호남문화연구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 수효는 1천여 개소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누정과 유사한 것으로 타 지역에서 보기 힘든 것은 모정(茅亭)이다.

이 지역의 누정건축의 구조는 대개가 3~4칸 정도의 다소 적은 규모이고, 평면형태는 방형으로 지붕은 팔작(八作)지붕이 일반적이고 간혹 육각, 팔각 혹은 맞배 지붕이나 우진각지붕의 형태를 갖고 있는 경우도 있다. 또한 실의 구성형태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전체가 대청마루를 깎 통활한 형이고, 다른 하나는 모두 방(齋室)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또 하나는 이 양자의 중간형 즉 1~2개의 재실과 대청을 함께 갖고 있는 형이다.

## 누정(樓亭)의 다양한 기능

누정의 기능은 소요(逍遙), 음풍(吟風) 은둔(隱遁), 강학(講學) 등으로 나타낼 수 있는 주된 의미 이외에도 시단(詩壇), 재실(齋室), 별서(別墅), 향학시행처(鄉學施行處), 양로(養老), 교화소(教化所), 사장(射場), 종회소(宗會所), 치수관리(治水管理) 등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후진양성을 위해 건립한 예로는 나주의 보산정사, 담양의 면양정, 환벽당, 죽림재, 보성의 열화정, 영암의 영보정, 장성의 청계정, 장흥의 월산재 등이 있다. 화순의 만화루는 향교의 루(樓)로서 강학(講學)의 장소로 사용되었다. 향약시행처로 담양의 남화정과 지금도 활동 중인 영암의 장암대동계를 위한 장암정과 청주 김씨를 비롯한 주민들이 참석한 대동계의 집회소 및 별신제(神祭)의 기지(基地)로 활용되면서 동정(洞亭)의 역할을 해온 장흥의 동백정이 있다.

누정이 건립된 위치는 강이나 천을 낀 산록이 보편적이며 자연히 조용하고 경치 좋은 곳을 택하였다. 그러나 반드시 산과 강을 낀 경승지에 자리 잡지 않고 농사일의 감독에 편리하도록 전답의 한가운데 있는 경우나 깊은 산에 있어 재실(齋室)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도 볼 수 있다. 최소한 팔경(八景)을 설정하여 주변의 경관을 즐길 줄 알고 높은 의미를 부여하였다.

누정은 입지를 선정할 때부터 조망의 대상으로 자연의 산수경관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경향이나 사례를 찾아보는 것은 어렵지 않으며 의의 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흔히 조망의 대상이 되는 것은 산이나 강, 호수, 땅, 하늘 등이라 할 수 있다. 송순이 그의 문집 기촌집(企村集)의 면양정기에서 "내려다 보면 땅이, 우러러보면 하늘이 있어 그 가운데 누정이 있으니 풍월산천 속에서 한 백년 살고자 한다."고 밝힌 것과 같은 의미에서 느낄 수 있다.

## 전남지방의 여러 누정(樓亭)과 원림(園林)

탐진강이나 영산강과 같이 큰 강이 흐르고 있는 유역에 세워진 정자는 크기는 정적이지만 작게는 동적인 강물이나 수경(水景)을 주요한 조망대상으로 하고 있다. 기타의 내륙지역에 입지한 누정은 넓은 들판과 가까운 산이나, 먼 산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 두드러진 예로서는 광주지역의 무등산 주변에 세워진 식영정, 취가정, 송강정, 호가정, 풍영정 등은 해발고 1,187m의 영봉 무등산을 조망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담양지역의 면양정과 남화정은 북쪽과 북서쪽에 솟아 있는 추월산과 병풍산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특히 눈으로 보이는 산만을 조망대상으로 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먼 거리의 산도 관념적으로 조망하고 있어 흥미로운 현상이라 할 것이다.

강이나 계류(溪流)가에 정자를 짓고 동적인 수류(水流)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즐기도록 조영되고 있는 예는 탐진강 유역의 부춘정과 경호정, 영벽정과 송

석정(지금은 이건됨), 무등산의 원효계곡의 풍임장 등이며 강안(江岸)의 언덕 위에 있어 눈 아래에 계류를 볼 수 있는 위치에 세워진 정자로는 탐진강의 용호정, 영산강의 장춘정, 함평의 관덕정과 세심정, 무등산 북쪽 기슭의 식영정, 동북천의 물영정, 망미정, 임대정, 보성강의 양벽정 등이다.

이 중에서 용호정은 절벽 위에 세워져 건너편 강가에서 보면 절승(絶勝)이며 용호정 앞의 양벽 상에서 내려다보는 강 풍경은 가관이라 아니할 수 없다. 조망대상을 인공적으로 보충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부춘정은 건너편 강안(江岸)에 배롱나무를 군식(群植)하여 무릉도원을 재연하는 듯 했으나 빈번한 홍수 피해와 최근의 제방구축으로 소멸되고 말았다. 장성의 요월정과 담양의 명옥헌에는 언덕 위에 배롱나무를 역시 군식하여 여름철이면 무릉도원을 연상하게 한다.



장흥 용호정에서 내려다본 탐진강



영암 부춘정



장성 요월정



담양 명옥헌

화순의 임대정은 대(臺)의 위·아래에 정원을 꾸미고 조망과 산책의 기능을 갖도록 하였다. 즉 대상(臺上)에는 섬이 하나 있는 방지(防池)를 중심으로 하여 섬에는 대나무를 심었고 주변에는 괴석(怪石)을 배치하였으며 넓은 동산에는 송(松), 죽(竹), 매(梅), 향나무, 단풍나무, 석류나무, 측백나무, 은행나무, 느티나무 등의 전통수종을 심고 있다. 대하(臺下)에는 지형을 따라 반월형의 곡지(曲池)를 만들고 상지(上池)에는 2개의 섬,



화순 임대정



함평 백화정

하지(下池)에는 1개의 섬을 두고 섬에는 배롱나무와 괴석(怪石)을 배치하였고 못 가운데에는 백련과 홍련을 심었다.

함평의 백화정은 글자 그대로 누정 앞의 화계(花階)에는 온갖 화목을 심었고 누정의 서편에는 한 개의 섬이 있는 방지(方池)를 만들어 그 주변에 배롱나무를 많이 심어서 시각적인 쾌감을 부여하고 있다. 명옥헌에도 현(軒)의 앞뒤에 섬 한개를 둔 방지(方池)를 만들고 못가에 배롱나무를 군식하여 경관을 감상함에 흥을 더하여 주고 있다. 물론 이들 세 원림은 주변의 자연경관도 조망의 대상이 된다.

또 소쇄원 같이 원림(園林)을 계곡 속에서 폐쇄적으로 조성하여 외부와는 차단된 무릉도원과 같은 그들만의 별세계를 만들고 옮겨가면서 경관을 즐길 수 있도록 누정 등의 조망장소를 여러 군데 둔 특수한 형식도 있다. 소쇄원의 경우는 계곡과 담, 그리고 숲으로 구성된 외부공간에 다소 한정적인 제한을 둔 경관을 보고자 하므로 성격상 여타 누정과는 위묘성이나 장소성이 내부공간적이며 범위가 좁다고 할 수 있으며 또한 조망경관의 스케일도 작다고 할 수 있다.



소쇄원

**전남지방 누정건축의 향(向)**

전남지방의 누정건축의 향(向)은 참으로 다양하다. 일견 남향이 압도적으로 많을 것 같으나 북향이나 북동, 북서향도 다수가 있다. 이는 누정건축이 자리 잡는 규범이 되는 것은 향이라는 개념보다는 오히려 조망대상이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있는 것 같다. 즉 주거건축에서는 향이 아주 중요한 요소이지만 누정의 경우는 남향을 우선하지만 그보다도 주 조망대상을 우선하여 배치하고 그 다음에 남향을 선택한 것 같다. 그 이유는 주거건축은 향시 기거하는 생활의 거처이기 때문에 향이 중요할지 모르나 주거보다는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은 누정에서는 무엇을 우선하느냐가 문제이다.

dycheon@chonnam.ac.kr

**피카소는 어떻게 그림을 그릴까?  
전북의 피카소 김종성 건축사**

대저위에 한쪽의 그림을 그리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는 전북의 피카소 김종성 건축사(CL 건축사사무소)를 만나 그가 꿈꾸는 도시·건축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그는 개인의 업무에 몰두하고 삶에 쫓기느라 무관심한 문화인프라, 공동체 공간에 대하여 공동 작업을 통하여 적극적 참여자로 활동을 하고 문화작가로서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김종성 건축사  
CL 건축사사무소(전북)



**피카소는 어떻게 그림을 그릴까?**

전북의 피카소 김종성 건축사(CL 건축사사무소)를 소개받았다. 인사차 명함을 나눠보니 사전에 들은바와 달리 명함은 '여백의 미(美)'로 가득 차 있고 숨은그림 찾기 할만큼 작은 글씨가 눈에 띄었다. 「프랑스/한국 건축사」 유희파도 아니고 프랑스 건축사라니? 궁금증이 더해졌다. 평소FC동호회, 대학강사로 활동하느라 본업이 뒤바뀌는 생활이 종종있다는 그는 자신을 포장하거나 나타낸 적이 없어 필자도 이력을 잘 몰랐다. 작은 글씨의 프랑스 건축사 직함마저 삭제하고 싶다는 그에게 순수함이 묻어남을 물론 느끼며 인터뷰를 시작했다. 전주에서 건축사 활동을 해온 그의 프로젝트 경력력을 보니 피카소란 별명이 어색하지 않았다.

그와 인사가 끝나기도 전에 프랑스로 가게 된 동기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중학교 시절 피카소는 어떻게 그림을 그릴까? 라는 의문을 가진 것이 동기가 되었다고 한다. 전북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후 서울에서 건축사사무소에 다니던 중 지인들과 프랑스 유학에 대한 생각이 공감되어 떠나게 되었다고 한다. 유학 7년간의 약력은 프랑스 언어능력 학위 D.A.L.F (DIPL ME APPROFONDI DE LANGUE FRANCAISE)취득 (1999. 3), 프랑스 제1국립 건축대학교 PARIS-MALAQUAIS 입학(1999. 7), PARIS-MALAQUAIS 학부졸업(2001. 7), 프랑스 베르사이유 국립대학교 박사과정 수료(D.E.A학위 2002. 10), PARIS-MALAQUAIS 석사졸업(2003. 6), 프랑스 국가공인 건축사 (D.P.L.G) 등 이다. 지역건축사로서 남고싶다는 그에게 지역의 브랜드를 가진 커다란 팽백을 켤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주어지리라 본다.



전주시 자원봉사센터(2005년)

디자인 발전에 일조하고 싶다"고 한다. 우리나라 현상 설계시 느낀 점은 "아이디어 및 공간구성보다 투시도의 이미지 측면이 강조되다보니 참신한 안이라 할지라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본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업무에 몰두 하느라 부족한 시간에도 후학들에게 배움을 나누고자 현재 전북대학교 건축학과, 우석대학교 건축인테리어학과 건축설계 강사로서 활동을 하고 있다. 초창기 강사시절 건축에 대한 열정과 의욕이 앞서 일대일 작업 등으로 학생들과 마찰도 있었다며 과거를 회고 하기도 했다.



전북여성일자리교육센터 현상공모 (2009년)

**건축과 도시 이야기**

"건축사의 덕목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란 질문에 건축에 대한 접근 방식을 건축주, 시공자 및 시행사의 보조 역할로서의 사례를 들려 "개인의 건축물로만 볼게 아니라 공공의 자산인만큼 문화를 생산하고 제조하는 사람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위상제고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도시에 대해서는 "우리는 우리가 사는 도시에 대하여 많은 것을 알지 못한다"고 자성하며 "얼마전 경주에 다녀와서 우리의 천년도시 전주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고 말하고 "다른 도시로의 여행에서 나의 도시, 우리의 도시에 대하여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자신의 공간을 모르면 다른 시간과 공간도 알 수 없고 알아도 아는 것이 아니라고 보기때문에 천년의 도시 전주를 건축인으로서 탐험하고 싶다"는 말로 포부를 밝히며 인터뷰를 마쳤다.

글을 쓰는 동안 생소했던 불어발음이 익숙한 발음이 되어 들려온다.

인터뷰·정리 : 김기범 건축사 기자  
vivo@kira.or.kr



마막 국제현상설계(2008년)

**발로 뛰는 토종 김종성건축사**

김제가 고향이며 현재 전주에서 CL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며 지역건축 DNA를 심기위해 전북건축사 FC동호회, 전국대회참가 활동 등 체력을 바탕으로 바쁜 일정을 소화해 나가고 있다. 수행 프로젝트는 교수 및 건축사들과 협업설계를 통한 '노들섬 국제현상설계, '전주시 자원봉사센터' 현상설계(당선), '대림자동차 기숙사지명 현상설계(당선), '전라북도 체육회관' 턴키(당선), '마막 국제현상설계등 다수가 있으며, "아이디어를 내는 작가, 다양한 파트너에 대하여 이해와 설득을 통한 서로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아티스트로서 지역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기 완료된 빛고를 노인건강타운과 연계하여 노인들이 사회로부터 소외받지 않고 건강관리와 여가선용, 고령친화제품의 정보제공 및 이용, 노인질환 전문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아 고령자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둔 '빛고를 노인건강타운' 건립 설계경기공모결과 (주)나우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의 안이 당선적으로,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류기람 건축의 안이 우수작, 백두 건축사사무소의 안이 가작으로 선정됐다. 총 196억여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이며, 영농체험관등과 실버주택등으로 건립될 예정이다.

### 빛고를 노인건강타운 건립 설계공모



**당선작** (주)나우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나승문 · 김민국 건축사

대지위치 : 광주광역시 남구 노대동 592번지(빛고를 노인건강타운 부지 내)  
 대지면적 : 영농체험관-28,747㎡, 실버주택-28,595㎡  
 지역지구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도로현황 : 12M 도로, 연면적 영농체험관-5,714.28㎡  
 연 면 적 : 영농체험관-5,714.28㎡, 실버주택-4,497.92㎡  
 건축면적 : 영농체험관-3,645.8㎡, 실버주택-2,656.39㎡  
 건 폐 율 : 영농체험관-12.68%, 실버주택-17.28%  
 용 적 율 : 영농체험관-19.88%, 실버주택-27.89%  
 층 수 : 영농체험관-지하1층 지상2층, 실버주택-지하1층 지상4층  
 주요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조  
 주차개요 : 영농체험관-181대(장애인 주차 7대포함), 실버주택-78대(장애인주차 10대포함)  
 주요마감 : 영농체험관-세라믹 패넬, 티타늄 아연 패넬, 커튼월  
 실버주택-목재 패넬, 티타늄 아연 패넬, 커튼월

빛고를 노인건강타운은 노인들의 휴식처이자 건강한 삶의 여가 선용을 위한 시설들로 의료시설(치매 등)과 고령 친화 제품 체험 전시장 및 파크 골프장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지형적 여건, 기존건물과의 조화 및 연계성을 고려하고 친환경적 단지로 계획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 전체 조감도 ▲ 중정부분 투시도 ▲ 영농체험관 투시도 ▲ 실버주택 조감도



**가작** 백두 건축사사무소  
강연심 건축사

광주광역시에서 기초성한 1, 2단계 사업과 연계한 3단계 사업이다. 노후생활에 대한 프로그램을 담은 각각의 시설물은 휴식과 취미활동, 보정 및 교정, 재활, 치료의 기능으로 분류된다. 1, 2, 3단계 사업으로 인접 부지에 존재하게 될 건축물은 각각의 기능만을 담은 단절된 공간이 아니라 연속적인 연계성을 유도하였다. 이용자의 편의성을 극대화하고 자연의 흐름을 복원하여 노인을 비롯하여 세대를 초월한 지역 주민들의 교류 공간을 연출하고자 하였다.



▲ 전체 조감도 ▲ 영농체험관 진입부 투시도 ▲ 실버주택 조감도

### 한길을 가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 인간적인 설계
- 설계제한 모형제작
- 참된 감리
- 감동적인 시공
- 정직한 법원감정



**한샘 건축사사무소**  
(주)한샘종합토건

건축사 최경양/ 대표이사 최옥선  
 광주시 북구 중흥동 644-22번지 3층  
 TEL. (062)526-4414, 5 Fax. 524-4415



학교소개는 우수건축인 양성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획하였으며, 먼저 4년제 또는 5년제 대학교의 건축전공을 광주·전남·전북 등 소재지별로 구분한 후 학교명의 한글 순서로 게재한다. 기사내용은 해당 학과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토대로 작성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학과로 문의하기 바란다. <편집자 주>

전남권 발전주역 양성기관

목포대학교 건축공학과

21세기 건축을 이끌어 갈 공학인 양성을 목표로 하는 교육!

유능한 건축공학인 육성에 힘쓰

지역인재 육성에 힘쓰는 지역교육의 요람인 목포대학교 건축공학과에서는 미래를 선도하는 전문 건축공학인의 양성을 위하여 우수한 교수진과 제반시설을 갖추고 국제적 공학교육인증(ABEEK)기준에 의한 4년제 건축공학(Architectural Engineering) 교육을 목표로 이에 부합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다양한 과학적 원리와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현실적 환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역특성건축물에 대한 공학적 해결을 위한 특성화 프로그램을 추구하고 있다.

지난 1989년에 개설된 이후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교육환경, 취업률, 자격증 취득률, 연구부문 등에 관한 장단기 발전계획을 수립, 실행함으로써 명실 공히 지역 대학선도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국내외 최고수준으로의 더 힘찬 도약을 위하여 교육과 연구부문에서 모든 구성원들이 지금도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전남권의 서남권 발전계획, J-프로젝트, 혁신도시 건설 등으로 역량 있는 전문건축교육을 받은 고급 기술 인력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므로 이에 발맞추어 유능한 건축공학인 육성에 힘쓰고 있다.

또한 본 학과는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교육을 통하여 지역특성건축물(해양, 관광, 산업기반 건축물)에 대한 인력양성과 재해 방재 및 유지관리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실험실습과 설계 교육의 내실화, 인력양성 및 취업을 제고 위한 산학협력체제 구축, 학생 개인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다.

다양한 경험을 가진 건축분야 전문가와 함께하는 초청강연회, 현장실습, 각종 실험 장비를 갖춘 공장동에서 실험, 교내 성적장학금과 각종 교외장학금 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

우리 건축공학과의 가장 큰 장점은 교수들과 학생들이 이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낸 끈끈한 유대감과 결속력이다. 교수들은 건축공학과 학생들이 입학해서 졸업까지 전담 지도교수의 상담과 지도를 통해 본인의 적성에 맞는 분야를 찾고,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이런 노력의 결실로 졸업한 많은 학생들이 건축의 각 분야에서 학교 및 본인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또한 학생들은 이 프로그램으로 인하여 어색한 새내기 시절을 잘 보내고, 무엇을 위해 가슴 속의 열정과 패기를 불태워야하는 지에 대해 생각하고, 스스로 발전하려 노력하는 계기를 맞으며,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넘어선 아버지와 자녀처럼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고, 평생 인생의 조력자를 얻게 되는 것이다.

1999년부터 시작된 학부제를 2010년에 폐지하고, 학과제를 적용함으로써 1학년 입학과 동시에 공학교육에 필요한 기초지식 및 맞춤형 강의를 제공하며, 건축공학에서 운영하는 구조연구실, 건축철골연구실, 시공연구실 등에 소속되어 각종 학생 공모전에 참여하는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기존 2학년부부터 시행해온 과정을

조기에 시행하여 체계적인 활동의 밑거름이 되는 기회가 되고 있다.

이런 과정들을 토대로 배출한 동문들은 설계사무소와 건설회사는 물론 지역 정계 및 학계에서 다양하게 활동 중이며, 지역을 넘어 전국적으로 활동을 넓히고 있다. 이들은 후배들의 보다 나은 교육환경 제고를 위해 많은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으며 취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도 한다.

그 외에도 동문들은 자신이 활동한 연구실 및 교수들과의 연락을 통해 각종 행사 및 현장체험에 도움을 주며,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는 끈끈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우리 건축공학과는 하나의 공간이 여러 가지의 다양한 공간이 될 수 있음을 알고, 그에 맞는 시공에 대해 고민하고 배워나가며, 무엇보다 친환경 고성능화 건축 실현을 위한 시공방법 모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역 인재의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하여 최고의 지역대학을 목표로 사람의 가치를 알고, 공간의 필요성을 알며, 우리의 역할과 책임을 아는 21세기 건축을 이끌어 갈 공학인 양성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산학협력을 위한 가족회사

목포대학교 공과대학 가족회사란 기업간 맞춤형 교육·연구 협력을 바탕으로 인적·물적 자원을 상호 공유하는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목포대학교 건축공학과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완성하고, 기업은 기술경쟁력 향상을 도모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가족회사를 운영함으로써 건축공학과는 기업에게 기술지도, 기술이전, 기자재 등을 제공하고, 기업은 학생들에게 현장실습의 기회와 가족회사 장학금, 겸임교수 활동 등을 제공함으로써 서로 상호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캡스톤디자인 EXPO 개최

공학교육혁신을 통한 창의력 및 시스템 통합설계 능력을 갖춘 공학기술인력 양성 및 창의적 공학교육 확산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캡스톤디자인 EXPO는 목포대학교 공과대학의 연중 행사의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건축공학과 학생들은 1년간 갈고 닦은 솜씨를 캡스톤디자인 EXPO를 통해 전시하고 발표함으로써, 공학인으로서 한걸음 앞장서고 있다.

목포대학교 공과대학 건축공학과  
학과장 : 오명호 교수 (ohmho@mokpo.ac.kr)  
학과사무실 : 061-450-2450



부속공장 실험실



졸업설계 전시회



졸업설계 전시회



초청강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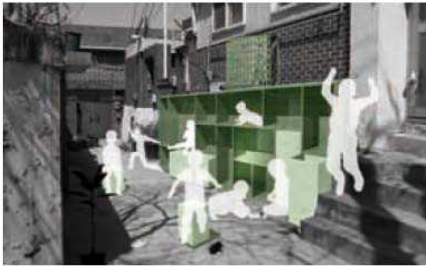
현장답사



컴퓨터실

## 제7회 도코모모 코리아 디자인 공모전대상 수상

- 강준성, 김선아, 김용수 (전남대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제7회 도코모모 코리아 디자인공모전은 인천 배다리 지역을 대상으로 [배다리 : 또하나의 인천: 삶의 가치와 맥락을 잇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되었으며 총 728팀이 작품을 접수하여 심사 후 100팀대상 1, 최우수상 1, 우수 2, 특선 15, 입선 81)을 선정, 시상하였다.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건축학 전공 강준성, 김선아, 김용수 학생이 제7회 도코모모 코리아 디자인공모전에서 'HIDE & SEEK in Baedari'를 출품해 최고상인 대상을 수상하였다.

이 공모전은 근대건축의 조사, 연구 및 교육, 홍보활동을 통해 우리나라 근대건축문화유산의 보존에 기여하는 도코모모 코리아(DOCOMOMO Korea)에서 주최하는 것으로, DOCOMOMO란 'DOcumentation and COnservation of buildings, sites and neighborhoods of the MOdern MOvement (근대운동에 관한 건물과 환경형성의 기록조사 및 보존을 위한 조직)'를 줄여서 부르는 말로, 취지에 찬동하는 사람들이 폭 넓게 참가할 수 있는 모임이다. 근대건축의 보존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도코모모 코리아의 활동과 매년 주최하는 공모전에 대한 참여도 늘어나고 있다.

배다리는 인천 동구 금곡동 일대로 1880년대 인천 개항 이후 근대부터 이어지는 삶의 흔적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 1998년 정부의 산업도로 정책으로 인해 주거지의 일부가 강제적으로 철거되었으나 배다리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공사를 중지하였다. 현재는 타협안을 검토중에 있으며 지역의 유구한 역사를 보존하자는 의견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대상작은 '배다리 골목에서 만나는 오래된 풍경'을 부제로 골목길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행위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팀의 대표인 강준성 학생은 "배다리 구석구석의 골목길이 가진 일상적인 요소, 흔적 등을 그대로 살려 도시공간과 소통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되었으면 했다"고 출품작에 대해 소개하였다.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이수정 학생기자 (rozen\_f@naver.com)

## 2010 경관취약지 개선사업 특별강연회

- 정석 경원대 교수, '건고 싶은 도시 만들기'란 주제로 강연



거리 조성 사례 비교, '서울시의 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사업' 등의 내용으로 강연했다.

정석 교수는 "건고 싶은 도시, 주민의 손, 시민의 힘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라고 강조하며 강연회를 마쳤다.

지난 6월 22일, 전남대학교 공과대학 2호관 4층 첨단강의실에서 2010 경관취약지 개선사업 특별강연회가 열렸다.

이번 강연회는 광주시가 주최하고 (사)도시연구소 시종이 주관하였다.

이날 초청된 정석 경원대학교 교수는 '건고 싶은 도시 만들기'란 주제로 '걸을 수 없는 대한민국의 사례와 선진국의

한편 경관취약지 개선사업은 광주광역시에서 도시를 황량하게하고 비친화적인 장소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지난 2009년에 (사)도시연구소 시종과 함께 예술고등학교의 오벽을 철거하여 주변 환경과 삶이 소통할 수 있게 하며 문화를 통해 시민 참여를 적극 끌어내어 민,관,산,학 거버넌스의 모델을 제시하였다.

## 전남대학교 국제 여름학교 운영

- '친환경통합설계' 주제로 개설

지난 6월 25일부터 29일까지 전남대 건축학부에서 국제 여름학교가 운영되었다. 호주시드니 UNSW(The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의 친환경 건축설계 전공 Steven King 교수를 초청, '친환경통합설계'란 주제로 개설되었다.

주요 프로그램은 시드니 해변가에 위치한 순례자 성당으로 환경에 대응하는 디자인이 요구되었으며 그에 따라 다양한 매체와 자료를 가지고 친환경 성

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는 분석과정을 동시에 진행하였다. 짧은 기간의 집중적인 강의와 작업으로 저학년 학생과 고학년 학생의 공동 작업으로 팀워크를 다지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전남대 이외에 광주대와 목포대에서 참여, 총 92명의 학생들이 함께하였고 모든 수업이 영어로 진행되어 학생들의 어학능력 향상, 외국과의 문화교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었다.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이수정 학생기자

## 농어촌 집 고쳐주기 운동 '희망家꾸기'

- 전북대학교 건축(공)학과 학생 34명 참가



전북대학교 건축(공)학과 학생들 34명은 담당교수와 함께 6월 28일부터 7월 4일까지 7일간 농어촌 집 고쳐주기 자원봉사활동을 다녀왔다. 28일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에서 개최한 '2010년도 농어촌 집

고쳐주기 자원봉사활동 발대식'을 시작으로, 전라북도 완주군 승치리 미남마을에서 봉사활동을 하게 되었다.

독거노인·다문화 가정 등의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주거시설의 열악한 부분을 개보수하거나 마을 환경을 정비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

정화조 설치부터 상하수도연결, 세면대와 양변기 설치, 화장실 내부 마무리까지의 작업을 통해 설계 외의 시공에 대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전북대학교 건축학부 김소희 학생기자 (el18734@naver.com)

## 순천대학교 디자인캠프 열어

- '생태건축'이란 설계 주제로 진행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2일까지 5일간 순천대학교에서 대한건축학회 광주·전남지회와 순천대학교 건축학부 공동주관으로 디자인 캠프가 열렸다.

광주·전남지역 소재 건축학(공학) 관련학과 재학생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캠프가 진행됐으며 관련학과 교수 및 건축가 14명(2명/1개교)의 튜터가 구성되어 대학생들의 설계학습을 지도했다.

이번 캠프에 홍성구 소장(DMP)의 'Green Architecture'란 주제와 임종

필 과장(순천시청 건축과장)의 '순천시 도시재생의 현황과 과제'란 주제로 초청 강연이 열렸으며, 평가회에 이세준 대한건축학회 부회장과 박홍근 (주)포유 건축사무소 대표가 참석했다.

한편 이번 디자인 캠프에 순천대를 비롯한 광주대, 동신대, 목포대, 전남대, 전남대 여수캠퍼스, 조선대, 호남대 등 100여명이 넘는 타대학 건축 전공 학생들이 참여하여 성황을 이뤘다.

순천대학교 건축학부 이태현 학생기자 (lit18@naver.com)

## 제7회 광주건축·도시 문화제 사진 공모전

- 출품작품**
  - 작품내용 : 아름다운 도시 경관(건축물+구조물+조경+골목길)
- 출품자격**
  - 응모자격 : 건축과 사진에 관심 있는 학생 및 일반인
- 작품접수**
  - 접수기간 : 2010.9.1(수) ~ 2010.9.15(수) PM 6:00(토·일요일, 공휴일은 제외)
  - 작품규격 : 11" X 14" 사이즈 사진 (규격 엄수)
  - 제출서류 : 필름 원판 또는 JPG원본 파일(사이즈 800X1,000 Pixel 2MB 이상)과 참가신청서
  - 등 록 비 : 없음 (1인 3작품 이내)
  - ※ 참가신청서는 홈페이지 <http://gjkira.kira.or.kr>에서 다운로드 작성
- 접수방법**
  -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
  - 접수 처 :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
  - 500-876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694-10 광주건축사회관 (4층)
  - Tel. 062)521-0025~6
- 입상작 발표**
  - 2010. 10. 23 (금) 홈페이지 <http://gjkira.kira.or.kr> 공지사항 게재 및 개별 통지
  - 시상일시 : 추후공지
- 시 상**
  - ▶ 최우수상(1명) : 상장 및 상금 100만원
  - ▶ 우수상(2명) : 상장 및 상금 50만원
  - ▶ 장려상(4명) : 상장 및 상금 30만원
  - ▶ 입선(다수) : 상장 및 기념품
- 전 시**
  - 전시기간 : 2010.11.4(목) ~ 11.7(일)
  - 전시장소 : 김대중컨벤션센터(4층) 전시실
- 기타사항**
  - 접수된 작품은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수상작의 작품과 필름에 대한 저작권은 주관사에 귀속됩니다.
  - 출품작품에 대한 저작권 등의 문제는 출품자가 책임을 지야 합니다.
  - 타 공모전 입상작으로 밝혀질 경우 입상이 취소(상장 및 상금은 추후에 반환됩니다).
- 주최 및 주관**
  - 주 최 : 광주광역시
  - 주 관 :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
  - Te. 062)521-0025~6 E-Mail : gjkira@empal.com

## 제23회 광주광역시 미술대전 입상자 발표

— 건축 부문 대상, 'The line : Time passage'

지난 6월 21일 발표된 '제23회 광주광역시 미술대전' 심사결과 건축 부문의 44점 출품 작품 중, 대상에 김아름, 김지인, 한강우



대상(The line : Time passage)

Time passage」이 선정됐으며, 최우수 상에는 박정훈, 이민규, 김경호 팀의 「살과 죽음이 공존하는 공간」 1작 등, 특선 4작, 입선 14작이 선정됐다.



최우수상(살과 죽음이 공존하는 공간)

구분	성명	작품명제	비고
대상	김아름, 김지인, 한강우	The line : Time passage	
최우수상	박정훈, 이민규, 김경호	살과 죽음이 공존하는 공간	
특선	강준성, 김슬기, 이신영	LANDSCAPE IN STREET	
	고은주, 황민성, 이동원	Curing cell box	
	손종호, 김현수, 맹선희	Hill in the past	
입선	김유림, 서희, 이원기	자연과 사람이 물로써 만난다	
	김보경 팀 외 13팀	유일해-물홍보전시장계획안	외 13작

## 광주시 도시디자인 탐사단 활동 개시

광주에서 지난 6월 14일부터 28일까지 15일간 모집한 도시디자인 탐사단이 이달부터 활동을 개시한다.

관련분야 종사자, 대학생, 일반시민 등 70여명으로 구성된 탐사단은 약 1개월간 각종 공공시설물 디자인에 대한 문체점 실태조사와 도시미관의 저해요소

발굴 및 개선방안 제안, 기타 도시디자인에 대한 의견제시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탐사단에게는 탐사단에 대한 증명, 용품(모자 등), 수첩 및 실비제공, 우수 탐사단원 시상, 도시디자인 관련 행사시 초청 등의 지원을 한다.

## 제46회 전라남도 미술대전 입상자 발표

— 건축 부문 대상, '광주극장 리노베이션'

지난 6월 19일, 목포문예회관 전시실에서 진행된 '제46회 전라남도 미술대전' 심사결과, 건축 부문 50점의 출품작 중, 대상에 김진표, 김슬기, 정은지 팀이 출품한 「광주극장 리노베이션」이 선정됐다.

특선 부분에는 강정민, 장윤정 팀의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시티센터」 외 9작이 선정됐으며, 입선에 서갑원, 서영

주, 조민석 팀의 「고령화 사회의 커뮤니티」 외 18작이 선정됐다.

시상식은 오는 7월 16일 오후 3시 목포문화예술회관에서 진행되며, 3부로 나눠 열리는 입상자 전시회에 건축 부문은 1부 전시일인 7월 16일부터 7월 20일까지 여수전남문화회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광속국 전담기자 ksk830710@hanmail.net



대상(광주극장 리노베이션)



특선(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시티센터)

구분	성명	작품명제	비고
대상	김진표, 김슬기, 정은지	광주극장 리노베이션	
우수상	없음	없음	
특선	강정민, 장윤정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시티센터	
	이종석, 김영호, 정보영	집합적 풍경	
입선	김상윤, 김준영, 이원진	Interactive urban space : live raky	
	강준성, 김미리, 장영인	W.A.L.T.Z eco park	
입선	권민영, 최송림	memory - scape	
	김홍근, 김민혜, 채아름	감성 미디어 도서관	
입선	권은지, 조세영	신창동 예코뮤지엄	
	김모두, 조대현, 김진성	dialog with space and space	
입선	서갑원 팀 외 18팀	고령화 사회와 커뮤니티	외 18작

## 제7회 광주건축·도시 문화제 그림 그리기대회

- 그림내용**  
- 건축·도시 경관을 주제로 한 그림(건축물+구조물+조경+공공공간)
- 출품자격**  
- 광주광역시 소재 유치원 및 초·중·대학생
- 작품접수**  
- 일 시 : 2010.8.1(수) ~ 2010.8.15(수) PM 6:00(토·일요일, 공휴일은 제외)
- 제출방법**  
- 참가신청서(신청 양식)와 그림을 함께 제출  
- 신청서 양식은 <http://gjkira.kira.or.kr>에 접속하여 다운로드하기 바랍니다.  
- 제출처 :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  
500-878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694-10 광주건축사회관(4층)  
Tel. 062)521-0025~6
- 제출규격**  
- 규 격 : 4절지 (초등학교 3학년 이하는 8절지도 가능)
- 참가부분**  
- 수채화, 파스텔화, 크레파스화
- 시상내역**  
- 수상작 발표 : 2010. 10. 15(금) <http://gjkira.kira.or.kr>를 통하여 발표  
- 시상식 : 2010. 11월 중 (개별 통지)  
- 시 상 : ① 초·중등부  
▶ 최고상(3점) : 20만원/점(광주광역시교육감상)  
▶ 금 상(4점) : 15만원/점 ▶ 은 상(8점) : 10만원/점  
▶ 동 상(15점) : 5만원/점 ▶ 입 선(약간명) : 기념품  
② 유치부  
▶ 금 상(2점) : 10만원/점 ▶ 은 상(3점) : 5만원/점  
▶ 동 상(4점) : 3만원/점 ▶ 입 선(약간명) : 기념품

- 기타사항**  
- 참가비는 없습니다.  
- 접수된 모든 작품은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입상작품은 제7회 광주건축·도시문화제(2010.11.4 ~ 11.7)김대중컨벤션센터) 기간 중 전시
- 주최 및 주관**  
- 주 최 : 광주광역시  
- 주 관 :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  
500-878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694-10 광주건축사회관(4층)  
Tel. 062)521-0025~6  
홈페이지 <http://gjkira.kira.or.kr>

## 제7회 광주건축·도시 문화제 UCC 공모전

- 공모주제**  
- 광주건축 도시이야기 (도시의 역사관, 도시디자인과 공간, 일상의 도시)
- 응모자격**  
- 자격제한 없음, 개인 혹은 팀(2인 이하)
- 응모규격**  
- 해상도 : 640x480 Pixel / 24fps 이상  
- 길 이 : 3분 이내 분량  
- 출품자료 : 파일 형대는 AVI, MPEG 형태로 제출하여야 함  
- 동영상 마지막 컷에 제작지(본인) 명시  
- 용 량 : 100MB 이내로 제작
- 작품접수**  
- 제출기간 : 2010. 9. (수) ~ 9. 30(목) PM6:00(토·일요일, 공휴일은 제외)  
- 제출방법 : 우편 및 방문접수  
- 제출처 : 500-878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694-10 광주건축사회관 4층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  
-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와 CD  
- 통 목 비 : 없음  
※ 참가신청서는 홈페이지 <http://gjkira.kira.or.kr>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 시상내역**  
- 시상일시 : 추후공지  
- 시 상 : ▶ 대상(1점) : 상장 및 상금 100만원 ▶ 금상(1점) : 상장 및 상금 70만원  
▶ 은상(2점) : 상장 및 상금 50만원 ▶ 동상(3점) : 상장 및 상금 30만원
- 심사 및 발표**  
- 광주건축도시문화제 운영위원회에서 내·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 구성 및 평가  
- 심사위원 및 심사과정은 공개하지 않음  
- 발표 : 2010. 10. 15 (금) 개별통지 및 홈페이지 게재
- 전 시**  
- 기 간 : 2010. 11. 4 (목) ~ 11. 7 (일)  
- 장 소 : 김대중컨벤션센터(1층) 전시실
- 기타사항**  
- 입상작품의 저작권은 주관기관에 귀속되며, 작품은 반환 불가  
- 저작권 문제 등 출품작품 관련 모든 법적 책임은 출품자가 부담  
- 기 공모전 입상작 및 포털로 밝혀질 경우 입상이 취소되고 상금은 주최측에 반환  
- 영모신청서 양식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 주최 및 주관**  
- 주 최 : 광주광역시  
- 주 관 :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  
500-878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694-10 광주건축사회관(4층)  
Tel. 062)521-0025~6, Fax. 062)528-0026, E-Mail : [gjkira@empal.com](mailto:gjkira@empal.com)  
홈페이지 <http://gjkira.kira.or.kr>

법령소식

● 국토해양부 최근 공포 법령

국토해양부에서는 2010년 5월 5일부터 최근까지 60여 개의 법령을, 70여 개의 훈령·예규·고시를 일부개정·전부개정·제정 등의 이유로 새롭게 공포하였다. 그 중에서 건축활동과 직간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만 열거하면 다음과 같으며,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http://www.moleg.go.kr>)의 최근공포법령을 참조하면 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255호, 시행 2010. 7. 6]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주택단지의 지하주차장 의무설치비용을 삭제
- 건축허가대상 도시형 생활주택에서도 주차장 완화기준을 적용
- 주택단지에는 전용면적당 아래 비율로 주차장을 설치하되,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0.7대)이상으로 설치

주택규모별 (전용면적㎡)	주차장설치기준(대/㎡)			
	특별시	광역시 및 수도권 내의 시지역	시지역 및 수도권 내의 군지역	그 밖의 지역
85 이하	1/75	1/75	1/80	1/95
85 초과	1/65	1/65	1/70	1/75

-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당 1대(중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건설하는 경우에는 전용면적 120제곱미터당 1대)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

「주택법 시행령」 -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254호, 시행 2010. 7. 6]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사실상 주거시설로 이용하고 있는 고시원,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등을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로 설정하여 준주택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
- 도시형 생활주택의 사업승인 대상을 현행 20세대 이상에서 30세대 이상으로 완화하여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을 활성화시킨. 이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 기준도 이와 일치시켜 운영상의 혼란을 방지함.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감사 및 동별 대표자 선출 방법 명시 및 대표자의 임기 제한
- 장기수선충당금 및 집수인 등에 대한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 일부개정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371호, 시행 2010. 7. 1]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창호, 외벽 등 부분별 단열기준을 약 20% 강화하고, 강화된 기준에 따른 단열제 두께를 제시
- 창호, 문 등외 외부 공기와 직접 접하는 경우 KS 규정에 의한 기밀성능 10등급 이상의 제품사용을 의무화.
- 냉방에너지 저감기준 산출태양광을 차단하는 차양 장치를 설치할 경우 가점을 부여
- 에너지 절약 유도기기(대기전력저단장치, 일괄소등스위치, 자동 온도조절장치) 설치 의무화
- 단열제의 두께(2011년 2월 1일부터 시행)

(단위:mm)

건축물의 부위	단열제의 등급	단열제 등급별 허용 두께			
		가	나	다	라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70	80	90	10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45	50	60	65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90	105	120	135
	바닥난방인 경우	75	90	100	115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60	65	75	85
	바닥난방인 경우	50	55	65	70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135	155	180	20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90	105	120	135
공동주택의 축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85	100	115	130
	바닥난방인 경우	30	35	45	50
공동주택의 층간 바닥	바닥난방인 경우	30	35	45	50
	기타	20	25	25	30

도시설계학회 광주·전남지회 심포지엄 개최

- 정기총회에서 광주·전남 지회장으로 최일목포대 교수 선임



(사)한국도시설계학회 광주·전남 지회는 6월 25일, NH공사 광주 지역본부에서 '광주·전남의 도시설계 나아갈 방향'이란 주제로 심포지엄 및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개회식과 환영사를 시작으로 주제발표, 종합토론, 정기총회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서 양운재 한국도시설계학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광주·전남 지회가 도시설계 분야의 지식발전소로, 지역사회에 신속하게 다가서는 학술봉사단체

로, 살기 좋은 도시만들기의 핵심주체로 크게 성장해 나가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심포지엄 첫 번째 주제발표는 공간 건축사사무소 오우형 팀장의 '일제리 부근 줄 신도시설계 사례 및 시사점'이란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홍익대학교 정재희 교수의 '미국에서의 도시설계 사례와 시사점', 원우기술개발(주) 윤옥순 이사사의 '광주 도시개발 사례 및 시사점'이 이어 발표됐다.

이와 함께 종합토론에서 조선대학교 건축학부 염대봉 교수와 광주대학교 건축학과 이영석 교수, 광주발전연구원 정성구 연구위원, 광주시 도시계획 휴안희 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토론회가 이어졌다.

한편 심포지엄 후, 열린 정기총회에서 최일 목포대 건축학과 교수가 광주·전남 지회장으로 선임되었으며, 이외의 임원진은 회장단에 임명키로 했다.

곽승국 전남기자 ksk830710@hanmail.net

건축문화사랑 주관 '건축탐방' 성공적으로 개최

- 향후 '건축문화포럼'으로 발전시킬 예정



건축문화사랑에서 건축문화에 대한 이해와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시도한 '건축탐방'이 지난 7월 3일 개최되었다.

이 날 탐방은 근대문화유산의 보고인 앙림동 지역을 대상으로 이춘홍 문화해설사의 도움을 받아, 광주기독병원, 호남신학대, 수피아여고, 우일선 선교사 사택, 오웬 목사 기념관, 이장우 가옥 등을 견학하며 서양과 광주가 처음 만난 앙림동의 근대문화유산을 탐방하였다.

이후 송효상 건축사의 '땅과 건축'이라는 강연회에서는 건축이란 장소가 있어 아만 존재할 수 있는 양식이며, 땅에는 터의 무늬가 있으므로 터에 맞는, 우리나라의 땅에 맞는 건축물이 지어져야 한다는 내용과 '건축가는 건축주를 위해

봉사하기보다 공공에 대해 봉사해야 한다.' '이제는 마스터 플랜이 아닌 마이너 플랜의 시기이다.'는 취지의 강의를 청강하였다.

한 편, 이 날 탐방은 실험적인 시도로서 건축문화 사랑 편집위원과 학생기자는 중심으로 이루어 졌으며, 참석자들은 하루 동안의 탐방이 상당한 의미와 윤희유로서 삶의 지양분이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향후 건축문화사랑에서는 건축관련강연회와 '탐방'을 정례화 시켜 많은 건축인과 시민들의 이해와 소통의 장이 되는 '건축문화 포럼'으로 발전시킬 예정이다.

곽승국 전남기자 ksk830710@hanmail.net

법무법인 서석

광주건축사회 고문변호사 윤춘주  
법무법인 서석 변호사

새로운 일을 추진할 때와  
문서에서 서명하기 전에  
변호사와의 전화 화 통화로  
많은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취급업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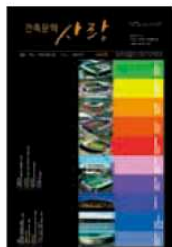
공증, 특허, 상표, 건설, 의료, 행정, 파산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5-2 범조타운 206호  
전화: 062-226-7400 팩스: 062-225-5310  
홈페이지: nicelawyer.co.kr/윤변호사.com

건축문화 사랑

2009년 11월 10일 창간

발행처 광주광역시건축사회  
발행인 신정철 전남회장 김강수 전회회장 이성범  
편집인 박승근  
전담기자 곽승국  
편집위원 이순미, 서재형, 정태호, 신영은, 박신남, 정명환, 장성호, 송명욱, 김기범, 정영범, 정관석, 박종호  
등록번호 광주광역시 라00144  
간벌 월간  
등록일자 2010-01-25  
인쇄·제작 삼화문화사 T.062222-6660  
광고신청 T.062521-0025



표/지/설/명

2010 남아공 FFA 월드컵 경기장  
2010 남아공 월드컵에 즈음하여  
경기장을 둘러본다.  
축구는 왜 세계인들을  
열광시키는가...  
생각해 본다.

건축문화 사랑 신문 발전기금을 모집합니다!

- ▶ 발전기금: 1만원부터
- ▶ 후원방식: 신협 131-009-471898 (예금주: 광주건축사회)

김 곤 | 선택 건축사사무소 30만원  
정태호 | (주)건축사사무소 영일.필 30만원  
조성호 | (주)광주공간 건축사사무소 30만원  
LG자이 분양사무소 | 50만원

건축문화 사랑 원고모집

건축문화사랑에 게재할 원고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독자사진/지역소식/동호회소식/책/수상/수필/작품노트/건축작품/독자만  
평/기타 (기행문, 시, 문학작품, 미담, 학위 취득, 교수 임용, 인사이동  
등 회원동향)

원고마감: 매달 25일  
문 의: 광주건축사회 (Tel : 062-521-0025)  
E-mail: gjk@empal.com

1. 건축작품 및 기타를 제외한 모든 원고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
2. 원고에는 작가의 사진과 사무소명, 직책 및 약력을 첨부.
3. 원고는 아래 한글, 명조체, 10포인트로 작성, 사진은 디지털파일로 제출.

## 광주건축사회 신정철 회장, JIA후쿠오카회 방문

### - 제11회 광주·후쿠오카교류전 등 국제교류전 협의 위해



광주건축사회 신정철 회장이 지난 7월 2일부터 3일까지 광주건축·도시문화제 남승진 사무총장과 함께 JIA후쿠오카회를 방문했다.

신정철 회장(좌측 두 번째)과 남승진 사무총장(좌측 첫 번째)이 JIA후쿠오카회 카쿠도우 회장(좌측 세 번째)을 비롯한 역대 회장들과 광주건축·도시문화제-제11회 광주·후쿠오카교류전과 일본건축가협회 전국대회의 국제교류전에 대해 협의했다.

일본건축가협회 전국대회는 올해 10월 7일부터 10월 9일까지 3일간 기타큐슈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되며 광주건축사회 전시부스가 별도로 마련되어 광주건축

**国際交流展**  
10月7日(木) ~ 9日(土)  
北九州国際会議場 会議室 No.11

JIA 福岡会  
KIRA 光州広  
域市建築士会  
共催、会員、学  
生の建築展。

**韓国・北九州学生  
ワークショップ**  
10月8日(金) 9:00~13:00  
北九州国際会議場 イベントホール

11回目を迎える国際ワークショップ作品の展示と講評。

사회 회원들과 학생들의 작품이 전시될 예정이다.

광주건축사회에서는 국제교류전을 위해 회원들을 대상으로 출품작품을 공모하고 있다.

광주국 전담기자 ksk830710@hanmail.net

## 전북건축사회, 대학생들과 간담회 가져

### - 우석대학교 건축인테리어 디자인학과 방문



전라북도건축사회는 지난 6월 8일 우석대학교 건축인테리어디자인학과를 방문하여 4학년 학생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전라북도건축사회 이성업 회장을 비롯하여 이정호 부회장, 한민 건축사(우석대학교 겸임교수), 최승희 담당교수와 4학년 학생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성업 회장의 건축사협회 소개와 건축사 시험제도에 관한 설명, 이정호 부회장의 취업 진로에 관한 설명을 듣고, 학생들의 질문을 받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성업 회장은 "건축사에 대한 정보 부족과 잘못된 인식으로 인하여 자칫 4년

동안 학교에서 배운 실력을 사장하는 경우를 보았다"고 말하고 "너무 취업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상 실현을 통한 삶의 가치 창출에 더욱 무게를 두고 1%의 가능성에 도전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하였다.

이정호 부회장은 "자신의 목표를 정한 후, 처음부터 너무 높은 곳만 바라보지 말고 자신의 목표를 향해 차근차근 한 단계씩 밟아 나가는 것이 보다 현명한 선택 일수도 있다"고 강조한 뒤 "전라북도 건축문화 발전을 위해 개개인별로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전라북도 건축사회는 매년 정기적으로 도내 대학을 직접 방문하여 사회 진출을 앞둔 건축 관련학과 학생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학생들에게 건축사의 역할과 제도, 진로 등에 대해 홍보하여 갈수록 심해지는 구인난을 해소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이 날 간담회는 건축사회에서 준비한 기념품을 학생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모두 마쳤다.

## 제7회 광주건축·도시문화제 '심포지엄' 개최

### - 한양대학교 건축학부 토미이 마사노리 교수 초청강연



광주광역시 주최하고 광주건축단체 연합회가 주관하는 제7회 광주건축·도시문화제 행사 일환인 건축문화 심포지엄이 지난 6월 23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양대학교 건축학부 토미이 마사노리 교수의 초청강연으로 시작됐다.

이번 강연회에 광주건축단체연합회 공동위원장을 비롯하여 건축사, 대학교수, 공무원, 대학생, 일반인 등 100여명이

넘은 인원의 참석으로 성황을 이룬 제7회 광주건축·도시문화제의 순조로운 출발을 자축했다.

이날 '일본 현대건축의 현황과 미래'라는 주제로 강연한 토미이 마사노리 교수는 사진 자료를 통해 일본 현대건축물의 흐름을 설명하며 "사진을 통해 보이는 공간들은 고정적인 형태가 아닌 시간의 흐름을 통해 새로운 모습을 형성화 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창조적 형상을 이미지화 시켜 건축물에 반영하는 것이 앞으로의 건축이다"고 강조한 뒤 강연을 마무리 지었다.

한편 이번 건축문화 심포지엄은 문화제 기간이 아닌 연중 총3회로 분산 개최하기로 함에 따라 열리게 되었으며 2회와 3회의 건축문화 심포지엄은 추후 공시될 예정이다.

## 광주건축사회 디자인자문신청 운영방법 개선 안내

광주광역시건축조례 제23조 제7항에 의거 운영되고 있는 광주광역시건축디자인자문 운영방법이 7월 1일부터 다음과 같이 개선 변경된다.

1. 자문신청
  - 가. 자문신청 제출서류
    - ① 자문신청서(hwp)
    - ② 자문의견서(hwp)
    - ③ 설계도서 : 설계 개요, 배치도, 각종 평면도, 입면도, XY 단면도
      - ※ 이미지 파일을 변환 게재
    - ④ 대지 근경 및 원경 사진(이미지 파일)
    - ⑤ 설계계약서 사본(이미지 파일)
      - 이미지 파일 : pdf, jpg, gif 등
      - 신청서 파일명 : 디자인자문일시상호(건축주).zip
      - ex) 2010070700(김대현).zip
  - 2. 도면 및 신청서 접수
 

광주광역시건축사회 웹하드 올리기전 용에 폴더(폴더명 : 건축사사무소 상호) 생성하여 올려진 자료와 자문수수료 및 설계연금(계약금의 10%) 입금 확인 후 접수 처리
- 입금계좌 : 신한 08118-12-000616  
예금주 : 광주건축사회
- 웹하드 : ID - kiragj  
SN - 0025
3. 디자인자문위원회 개최
  - 개최 시기 : 매주 수요일(공휴일인 경우 목요일에 개최)
4. 디자인자문결과서
  - 광주광역시건축사회 웹하드 내리기전 용 디자인자문위원회 폴더에서 다운로드하여 새움터에 자료 등록
  - 문의  
대한건축사협회 광주광역시건축사회  
Tel.062521-0025(담당 박한식 과장)
  - 디자인자문신청 운영방법 개선 관련 자료는 광주광역시건축사회 홈페이지 <http://gjkira.kira.or.kr>에 접속하여 공지사항 참조

## 전라북도 건축유관기관(단체) 체육대회 열려



전주시 건축사회와 전라북도내 건축유관기관(전북도청, 전라북도교육청, 전주시청, 김제시청, 완주군청) 건축직 공무원들이 지난 6월 19일 완주군 문화체육

센터에서 체육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전주시 건축사회 주관으로 개최한 이날 행사에는 230여명이 참석하여 축구와 배구, 레크레이션 경기 등의 종목에서 열띤 경쟁을 펼쳤으며, 전라북도 교육청과 전북도청 연합팀이 우승과 준우승을 나눠 가졌다.

이번 체육대회는 2008년도부터 시작되어 세 번째를 맞이하는 행사로써 지난 대회에 비해 좀 더 내실 있는 일찬 대회로 치러졌으며 전북 건축인의 뜨거운 열정을 하나로 모으는 축제의 장이 되었다.

### News 광주 건축계 동정

- **변경 (소재지 변경)**
  - 강성호 건축사, 국일 건축사사무소 / 광주 서구 농성동 450 3층
  - 강성진 건축사, 무진 건축사사무소 / 광주 서구 매월동 948 산업용재유통센터 8동 230호
  - 심문기 건축사, (주)현진 종합건축사사무소 / 광주 서구 금호동 829-1번지
  - 정정상 건축사, 정상 건축사사무소 / 광주 북구 중흥동 327-20
- **입회**
  - 김형준 건축사 (주)건축사사무소 휴먼앤스페이스
  - 김기일 건축사 다진 건축사사무소
- **폐업**
  - 박정홍 건축사 건축사사무소 화인
- **결혼**
  - 류연창 건축사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류가람건축 / 자녀
- **부고**
  - 조성호 건축사 (주)광주공간 건축사사무소 / 빙부상 - 6월 11일(금)

### News 전북 건축계 동정

- **변경 (소재지 변경)**
  - 이성업 건축사, 아람 건축사사무소 /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1가 192-5
  - 김상수 건축사, 한솔 건축사사무소 / 전북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229-2
  - 조영철 건축사, 모양 건축사사무소 /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1가 704-6
  - 황정수 건축사, 복지 건축사사무소 / 전북 장수군 장수읍 284-1
- **변경 (사무소명 변경)**
  - 정태인 건축사, 건축사사무소 화신 → (유)화신 건축사사무소
- **부고**
  - 유병조 건축사 메카 건축사사무소 / 모친상 - 6월 10일(목)
- **기타**
  - 하정규 건축사 유천 건축사사무소 / 6월 11일~17일 개인작품(서양화)전시회
  - 최진호 건축사 우창 건축사사무소 / 6월 22일 전주 기린라이온스클럽 회장 취임
  - 정범수 건축사 남북 건축사사무소 / 6월 23일 전주 남문로타리클럽 회장 취임

### News 전남 건축계 동정

- **변경 (사무소명, 소재지 변경)**
  - 김복환 건축사, 건영 종합건축사사무소 / 전남 화순군 화순읍 훈리 44-1번지

● 수필

### 가족 여행

김매화  
주부/광주 광산구 우산동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 것처럼 현대사회는 노령화와 핵가족화의 길을 가고 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로부터 손자와 손녀에 이르기까지 3대가 어울려 살던 대가족의 정겨운 모습은 아련한 추억 속에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바쁜 일상에 쫓기다보니 이제는 온 가족이 한 자리에 모이는 것조차도 쉽지 않다. 그러다보니 가족이라는 의미도 대가족과 핵가족을 구분해야 할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다.

하지만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중심으로 한 대가족의 연결고리는 현대사회에서 더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핵가족화로 인해 쓸쓸한 노후를 맞고 있는 우리네 부모님들을 이대로 방치할 수만은 없기 때문이다. 한두 명밖에 되지 않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사춘지간이라도 친형제처럼 서로 의지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한 가정을 꾸려 나가고 있는 중장년층은 대부분 위와 같은 생각에 공감할 것이라 믿는다. 그러나 생각만 있을 뿐, 바쁜 현실 때문에 실천으로 옮기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 명절이나 제사에 대한 의미도 과거와는 많이 달라져 가족이 모두 모이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경험에 기초하여 가족의 결속력을 다지는 방편으로 가족여행을 추천하고자 한다.

시댁은 어느 집안과 다를 바 없이 5남매가 각지에 흩어져 각자의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으며, 시어머니께서도 홀로 사신다. 그럼에도 돈독한 가족애와 형제애 그리고 화목한 분위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로 부터 부러움을 사고 있다. 아마도 그렇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일 년에 몇 차례씩 이어지는 가족여행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시댁 가족여행의 특징은 그 무엇보다도 모든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에 가장 큰 가치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여행 시기와 장소도 그런 관점에서 정해지며, 일단 정해지면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적극적으로 동조한다. 그리고 그런 기회를 자주 갖도록 끊임없이 노력한다는 것도 특징 중의 하나다. 친인척의 대소사까지도 일일이 챙겨 그것을 여행 동기로 활용하기도 하고, 약간의 개인적인 화생은 기꺼이 감내하면서까지 여행을 추진하기도 한다. 또한 일단 여행을 떠나면 잊혀지지 않을 행복한 추억거리를 많이 만들어 낸다. 그래야 가족의 소중함과 사랑도 각인시킬 수 있고, 앞으로 이어질 가족여행에 대한 기대감과 동참의식도 드높일 수 있을 테니까.

최근에 다녀온 가족여행 중에서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작년 여름의 속초여행이다. 휴가철이라 혼잡을 피하기 위해 기차를 이용하기로 하고, 1차 집결지인 대전 시누이 집에 모여 날을 지새우는 것으로 설레는 마음을 달랬다. 그리고 기차가 왕복 12시간에 걸쳐 태백산맥을 넘나드는 동안에는 지루함을 느낄 새도 없이 기차여행만의 추억들을 만들었다. 그리고 목적이인 속초에서도 추억 만들기는 멈추지 않았다. 그 중에서 하이라이트는 돌아오는 길에 강릉역 앞에서 펼쳐던 가족 장기자랑이었다. 시댁식구들은 기차를 기다리는 한 시간 정도의 시간도 낭비하지 않았다. 생각해보라, 할머

니로부터 유치원에 다니는 손자에 이르기까지 20명이 넘는 대가족이 한사람씩 나서서 무더운 어느 여름날, 강릉역 앞 광장에서 노래를 부르며 춤추는 모습을.

시댁식구들은 것처럼 개인적인 썩스러움보다는 가족의 화합을 먼저 생각한다. 그리고 바로 그런 여행을 통해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유대를 강화하며, 행복에 겨워한다. 그러면서 화목한 가족애를 한껏 과시하기도 한다. 당연히 길을 가던 사람들도 걸음을 멈추고 신기한 듯, 부러운 듯 쳐다보았다.

사실 신촌 때는 그런 분위기가 생소하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오히려 지금은 적극적인 동조의 차원을 넘어 앞장서는 입장이 되어버렸다. 그와 같은 가족여행이 주는 긍정적인 효과와 행복감을 절실하게 느꼈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도 권하기도 하고, 친정에도 전파시켰다.

이 글을 쓰기 위해 지난날들을 회상하다보니 즐거웠던 순간들이 떠올라 조만간 가족여행을 떠나지 않고는 못 배길 것 같다. 현재 와병 중이신 친정아버지와 시어머니께서 쾌차하시면 친정식구들과 또는 시댁식구들과 신나는 가족여행을 떠나고 싶다. 아~ 하루빨리 그 날이 오기를 ...

● 시

### 월드컵의 꿈

權岩 유응교  
現 전북대 건축학과 명예교수

푸르고 아름다운 별 지구 위에서  
수역의 인류가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높이 꿈을 띄우는  
현란하고 절묘한 발끝의 예술을 보라

숨 막히는 긴박감과  
붉은 피 고동치는  
푸른 초원 위에서  
희망을 버리지 않고  
꿈꾸는 아름다운 투쟁을  
눈부시게 바라보라  
누가 저토록  
어디로 갈지 아무도 모르는  
동글고 영롱한 꿈을  
환호와 감동 속에  
눈물과 땀으로 이룰 수 있게 했는가?

살아있는 것들의 투쟁의 본성을  
총성 없는 전쟁의 승리와 패배 속에  
인류의 꿈을 수놓은 저 아름다운 평화를  
가슴 뛰는 심장으로 지켜보라

특/별/기고

### 수변안전요원 사고자 발생시 행동요령

김정훈  
보성소방서 근무/동신대 소방행정학과 겸임교수

#### ① 도움요청

가장 먼저 할 일은 주변에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본인 또는 다른 누군가가 구조대원에게 연락을 하여야 합니다.

#### ② 구조

경험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면 선불리 물에 뛰어들지 않아야 합니다. 먼저 가능한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그 순서는,

#### 1. 물에 뜨는 물체를 던집니다.



#### 2. 막대나 로프를 이용하여 끌어당깁니다.



#### 3. 거리가 멀다면 보트를 이용합니다



#### ③ 의식이 없는 사고자를 구조하였을 때의 응급 처치

구조요원 또는 119에 아직 신고 되어 있지 않다면 신고 합니다.

가장 먼저 할 것은 인공호흡입니다. 물 밖으로 완전히 나오지 않았더라도 얇은 곳까지 도착하면 곧바로 실시해야 합니다. 사고자의 사망을 막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처치 중의 하나입니다.

★ 물을 빼기 위하여 복부나 등을 누르는 행위는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유는

사고자의 대부분은 물이 많이 흡인하지 않으며 흡인한 물은 신속히 폐를 통해 흡수되므로 물을 빼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사고자의 위 속에 있는 물과 음식물을 오히려 역류시켜 기도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인공호흡이 늦어지게 되므로 그만큼 사고자의 소생가능성이 작아집니다.이후의 응급처치 요령은 일반적인 심폐소생술 요령과 동일합니다. 만약을 위해 자녀들의 연령에 맞는 심폐소생술 요령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건축사 Gallery



#### 지난여름

지난여름 ..  
무등산 자락에 스케치갔다가  
푸르름을 도도하게  
자랑하는듯한 신록과  
한가로운 마을을  
담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림: 김선채 건축사

Photo



#### 영산포 동심의 새벽

남도의 멋드러진 일출을 감상할 수 있는 나주영산포의 동심이 4대강사업으로 유량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제는 사라져가는 동심의 자연스런 모습이 안개 속에 묻혀버리는 듯해 못내 아쉽습니다.

(2010. 4. 12 촬영)  
박종호 건축사 기자



해남 파인비치 -그늘막



서울 오류고등학교-외장재



광주 첨단수입차매장-외장재



경남 통영 해저터널-지붕재



강원 평창 알펜시아 -지붕재



강원 평창 알펜시아-지붕재2



전남 순천 상삼출장소-지붕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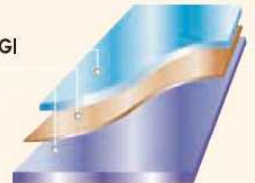


전남 여수 세관-외장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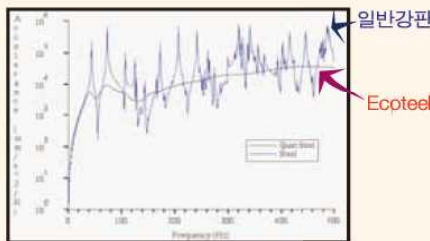
오티스, 티센크루프 - Elevator

모재 : STS, Cu, Brass, GI  
 점탄성수지  
 부재 : GI, EGI, GL, GI



# Ecoteel

for your space 에코틸



진동테스트

Spec	열확산율 mm <sup>2</sup> /s	열전도율 W/mK
일반 STS 0.8	4.837	14.262
STS0.2+GI0.6	1.449	4.980
일반 Cu 0.7	45.303	150.514
Cu0.1 + GI0.6	0.936	2.901
일반 CR 1.6	15.449	52.606
CR0.8+CR0.8	1.335	4.936

I Smile  
**해원 엠에스씨주**  
<http://www.hwmsc.co.kr>

본사 : 전남 순천시 서면 선평리 4번지 T(061)759-2500  
 영업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옥동 1232-8번지 T(062)956-2871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11-7 교통회관 8층 T(02)413-2903

우리의 대표브랜드-삼성

# 무등의 비로움을 12로 세계적으로!



알고 계셨나요?



## 삼성 시스템에어컨(천정형)은 우리고장 광주삼성전자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삼성광주전자주식회사는 1989년 광주 하남산업단지에 설립된 광주지역 독립법인입니다. 2조원 규모의 호남제일기업으로써 고용인력증대 및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고있으며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기업이 되기 위해 장애인 지원 등 다양한 사회복지활동 및 광주광역시로부터 환경친화 기업으로 선정된 삼성광주전자는 인간의 생명과 자연을 보호 한다는 신념아래 전사녹색경영을 통한 자연과 환경보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 하남산업단지 내 삼성광주전자

저렴한 유지비 + 인테리어까지 생각한 1:1 맞춤바람은  
오직 **내고장 광주기업 삼성 시스템에어컨(천정형)** 뿐입니다!



### 우리지역 삼성 시스템에어컨(천정형) 전문점

(유)삼성무동특민 062)365-6900	(유)에이원공조시스템 062)681-8504	순천 동부이앤에스(주) 061)722-0850	전남지역 나주 (주)하이목스 061)336-0071~2	군산 (유)삼성특판공조 063)451-7800
(주)센도리 062)268-5811	(주)오성에어텍 062)971-7742	순천 티에이에스(주) 061)721-4798	전주 디지털공조 063)277-7999	익산 (유)한국설비 063)832-7152
광주지역 (주)한국엘이씨 062)521-2341~2	(주)삼성공조시스템 062)952-0048	전남지역 여수 삼성냉열시스템(주) 061)653-2025	전주 (유)삼성에이비공조 063)226-0419	익산 두일공조시스템(주) 063)841-5800
(주)에이앤비 062)603-4787	그린공조시스템 062)385-7300	광양 (주)디에스시스템 061)795-6631	전주 (유)일산공영 063)212-9131	익산 삼성동성에어컨(주) 063)855-6700
(유)하우젠공조시스템 062)511-0006		목포 (주)한빛시스템 061)247-9500	전주 (유)정연엔지니어링 063)244-7777	